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10!
새해!
희망!



2010·1
통권163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도자기 김치용기가 들려주는 맛있는 소리

100% 무연유약의 친환경 김치용기가 플라스틱 김치통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김치독김치 맛을 되살립니다

- 1 깊은 맛** 세계 명품도자기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독일 MILLEROY & BOCH, 미국 MIKASA, 영국 MARKS & SPENCER, JOHN LEWIS, 스칸디나비아 ILLALA, 이탈리아 CISLAGHI, LVELLARA, 일본 NARUMI 등을 생산 공급하는 젠타국이 그 품질 그대로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 2 건강한 맛**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걱정이 없습니다
Pb(납)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100% 무연유약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캘리포니아 Prop.65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도자기입니다.
- 3 살아있는 맛** 원적외선이 맛을 신선하게 지켜줍니다
최첨단 신소재와 본차이나의 주원료인 Bone Ash 등 최고급 천연원료만을 사용, 원적외선의 기가 방출되어 김치의 신선도를 4계절 지켜줍니다.
- 4 변함없는 맛** 일반도자기 3배 강도로 단단합니다
1250℃ 이상 고온에서 3번 구워낸 세계 최초의 신소재 초강자기로 일반도자기 3배의 강도를 지녀 잘 깨지지 않고 냄새나 색이 배지 않습니다.

밀폐김치용기 밀폐김치용기 사이즈(단위: cm) : 5.7L-22X21X22, 3.6L-22X21X14, 2.7L-22X21X11, 2.3L-20X14X14



브라즈 [오렌지] 5.7L / 3.6L / 2.7L / 2.3L



멜로즈 5.7L / 3.6L / 2.7L / 2.3L



블레이드 퍼피 5.7L / 3.6L / 2.7L / 2.3L

밀폐찬기



카멜리아 밀폐찬기(원형, 직사각, 정사각)

Showroom

Grand Indonesia.Lt2
Tel:(021)23580601

Pondok Indah Mall.Lt3
Tel:(021)75920615



Hankook Ceramic Indonesia

ZEN (주)젠한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PT. DONG JUNG INDONESIA
ISO 9001 : 2000 ISO 14001 : 2000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PT.BUSANA PRIMA GLOBAL (BPG)

We Want to be one of the Best Garment Factory in the World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칙과 신뢰를 회사경영의 기본으로 여기며 고객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SOCIATED WITH :



PT.BUSANA PRIMA GLOBAL



Certificate No. : 005/0666

Jl. Mercedes Benz No.223A, Cicadas, Gunung Putri, Bogor - Indonesia 16964

Phone : (62-21) 8676110 (Hunting), Fax : (62-21) 8676115,8676116

Website : <http://www.bpg.co.id>, Email : busana@bpg.c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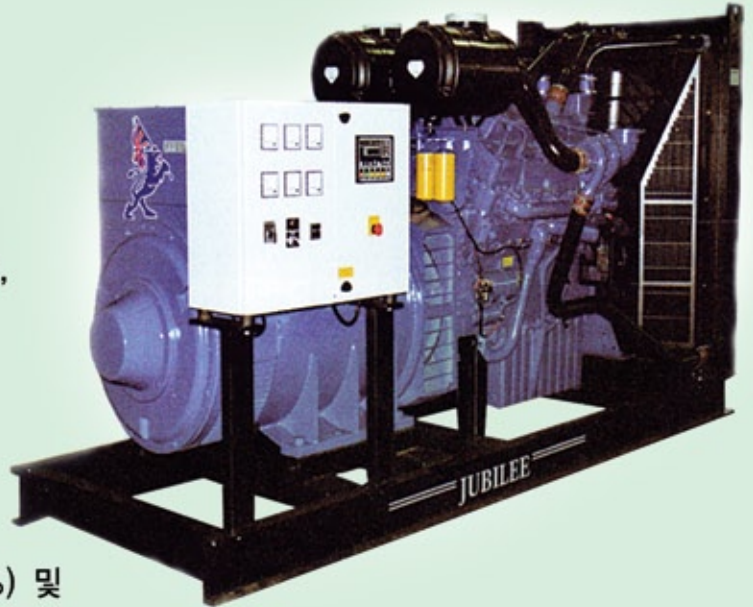


PT. JUBILEE POWERGEN ENVITEC

In Technical Collaboration with Jubilee U.K.

디젤 발전기

- CUMMINS, PERKINS, MAN, DOOSAN, HYUNDAI, VOLVO, MTU 등
- Open Type, 방음형, 트레일러형 등
- Synchronizing Panel, AMF/ATS
- 가스혼합기(Bi-Fuel/Gas Mixer)
기존 디젤 발전기에 장착하여 Gas(60%) 및 경유(40%)를 혼합 사용하여 경비 대폭 절감



PT. JUBILEE POWERGEN ENVITEC In Technical Collaboration with Jubilee U.K.

Wijaya Grand Center Blok G-12 A/B, 4th Floor, Jl. Wijaya I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Tel : (+62-21) 7251551(Hunting) / Fax : (+62-21) 7399360

Hp : (+62) 818 143646 / Email : jpenvitec@yahoo.com

청기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저희 청기와를 찾아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09년 새해 맞이 "평평" 축제를 준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풍선 터트리는 재미도 보시고 "평평" 쏟아지는 선물도 받으세요.

기간 : 2009년 1월 1일-20일

청기와

대나무 숯불구이

청기와

CHUNG GI WA

고기와 냉면



유기농 쌈채



신선한 육회



OPEN : 11시 ~ 24시까지

청기와
CHUNG GI WA

Graha Purna Wira Polri Darmawangsa III No. 2 Kebayoran Baru - Jakarta Selatan

Tel : 726-1565/1924

HP : 0812-907-7700

국내외 여행 하나관광과 함께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 왕복 항공권



국제노선 항공권



인도네시아 국내 패키지



해외 패키지



국내외 호텔 예약



차량대여



싱가폴 비자 수속 대행



HANA TOUR

ITP
International Travel Partnership

HANA TOUR(Head Office)

Tel : (62-21) 521-2450 / Fax : (62-21) 520-5299
Korea Center Bldg, Ground Flolr,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예약 문의

jseung@hanagr.travel
khan@hanagr.travel

HANA TOUR(Tangerang)

Tel : (62-21) 558-2351/8965
Fax : (62-21) 520-2352
HP : 0815-182-2983 전경환
ky1102@indo.net.id

HANA TOUR(Surabaya)

Tel : (62-31) 568-6725~6
Fax : (62-31) 567-2858
HP : 0812-325-2991 조희숙
hanatoursby@hotmail.com

HANA TOUR(Bali)

Tel : (62-361) 285122,7441525
Fax : (62-361) 281-398
HP : 0811-385-593 노영만 이사
baliro97@hotmail.com
Jl,By Pass Ngurah Rai No,500,Sanur Bali

HANA TOUR(Semarang)

HP : 0813-2587-5061 김남호
nhkking@yahoo.co.kr
Taman Setia Budi
Jl,Primatama No,74 Semarang

HANA TOUR(Bat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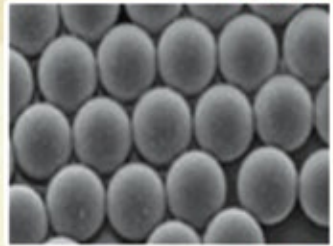
HP : 0815-3609-3636
김대진 과장
djkim010@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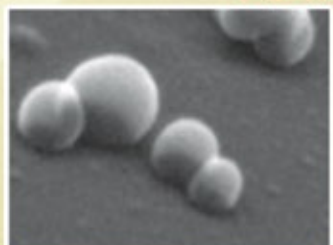
막춤형 비만 프로젝트

솔한의원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 리포덤 도입

(시술 전)



(시술 후)



-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시술 가능
- 지방이 많은 복부, 허리, 둔부, 허벅지 등의 지방세포 파괴에 탁월한 효과
- 시술 후 대체로 2-4주가 지나면서 사이즈가 감소 (한번 파괴된 지방 세포의 숫자는 다시 늘어나지 않음)
- 지방세포를 파괴하여 세포 수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요요현상” 이 거의 없음
-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멍이나 통증, 흉터가 없는 비수술적 지방제거 방법
- 시술 후 병원에 입원이 필요 없고 바로 일상 생활 가능

New

한달 동안 **비만 패키지 이용 고객 50% 할인 프로모션**
(리포덤+지방 분해 약침+고주파+비만침+체지방 검사)

두툼하고 축 쳐진 팔살, 볼록볼록 살, 거드랑이 군살에 특히 효과!

솔한의원

Darmawangsa Square 3층(그랜드 위자야 센터 옆)
021-7278-7410 / 8287(예약해 주세요)

Travel Services with

Korean Touch!

Air Ticketing

Hotel Reservation

Overseas & Domestic Travel

Tailor-made Corporate Travel

GOH 패키지 특선

“Garuda항공티켓 + 호텔숙박”

GOH to Korea

Free & Easy Seoul

그랜드 앰버서더, 노보텔(강남,독산), 이비스(명동,강남),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Health Care Seoul

(Health Care Seoul + 종합건강검진)

이비스 강남 + 건국대학교 명품헬스케어센터



GOH to Indonesia

Jakarta Business Package 65만원 부터

리츠칼튼, 무리아, JW 메리어트, 그랑멜리아, 크라운 플라자, 아스톤 마리나

Family Package 5박7일 75만원 부터

- 고대의 도시로: 족자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 축제의 섬으로: 발리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국제선·국내선 항공티켓



해외 여행 패키지

왕복항공권/호텔 및 리조트/공항 및 여행지 이동차량/ 가이드/식사 포함



Garuda
Orient Holidays

Operated by **BPW SATRIAVI**

Tel. (021) 7278-0856/9 Fax. (021) 7278-8375
michelle@garudaholidays.kr / www.garudaholidays.kr

Unit 55 3rd Fl. Dharmawangsa Square Citywalk,
Jl. Darmawangsa VI & X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오직 최고의 재료만으로 성의껏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Han'yang Kagaya Restaurant

Senopati street no.43C,Kebayoran baru jakarta 12190-Indonesia Tel : +62-21-5212522 Fax : +62-21-5737319

Opening hour : 11.00am to 01.00am MON / SUN ※12월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합니다.

한인들 사이에
미담(美談)이 만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승은호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격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New Millennium)을 맞이하면서 가슴 설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에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10년째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이든 소중한 시간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이번 2010년 원단(元旦)에는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21세기의 첫 10년을 결산하는 해'라는 의미를 함께 부여해 본다면, 어느 해와는 조금 다른 각오로 해맞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년은 경인년(庚寅年), 범띠 해입니다. 호랑이는 백수(百獸)의 왕이라는 상징 이외에도 특별히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 한인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기백으로 씩씩하게 이겨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밀려닥친 경제 불황 때문에 한인여러분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줄 압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나라 밖 이역(異域)에 거주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갑절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같은 배를 함께 탄 한인들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이곳 저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인들 사이에 무수한 미담들이 만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 한인회 역시 모름지기 여러분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정부 간 교류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우호협력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녹색성장산업 분야와 방위산업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이 진행되는 등 나날이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들 각자의 민간외교의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양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년(庚寅年) 새 아침에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 호 영

희망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온 백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호랑이는 영물 중의 영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도 백호는 최고의 상서로운 영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이 우리 민족에게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복된 한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해보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문하시어 모든 면에서 양국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놓으셨으며, 이 바탕위에서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 결정 같은 경제적인 협력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벅차게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국문화주간 행사에서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동포사회와 대사관이 함께 한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나라와 우리 동포들의 위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도 많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뉴스들로 인해 가슴 벅찬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G20 정상회의도 11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동포여러분! 이러한 와중에도 경제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사로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하지 못한 자괴감이 앞섭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우리 동포 모두 주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 동포들께서 소망하셨던 자카르타 한국문화홍보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상으로 견주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와 인도네시아 문화가 함께 발전하고 양국민이 서로 이해하는 문화소통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저를 포함 대사관 직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국격이 크게 향상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6



20



23



28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39

52



68



72



85



16 희망 2010

새해 미션! 제한시간 3시간. 400개 도시락을 준비하라!

20 한인사회 소식

- 승은호 한인회장 연임, 한인회 3년 더 이끈다.
- 한인회 정기 이사회 총회 개최
- 한국신발협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교민들, '한사람 한나무 심기 운동' 적극 동참
- 음악은 이렇다!
- 김호영 대사, 모범 교민에 표창장 수여
- 깊이가 더해진 '자필목연전'
- 김광현 씨, 대통령 공로상 수상
- 우리프리스트지클럽, 불우한인돕기 사업 확대
- UI 한국학과 학생들 대사관저에서 즐거운 오후 보내
- 월드컵 인니지회, 훈훈한 송년의 밤 열어
- 삼익약기, 지역 학생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
- KOWIN 인니지회 야심차게 새해 활동 시작
- 중부자바한인회, 송년모임 가져
- ROTC 인니지회,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 개최
- KOICA, 인니 재난 조기경보전파시스템 구축 완료

39 이임 인터뷰 김병권 코트라 자카르타 KBC 센터장

42 건강칼럼 루비로 가득찬 붉은 주머니 천연 에스트로겐 **델리마**

42 단체장들 2010년을 말한다

52 한인뉴스 공모전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아인으로" 예미해 씨 우수작으로 당선

61 시사포커스 18 공적자금

64 유춘강의 긍정칼럼 **그리운 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66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한 아이의 비밀 2**

68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보물이 가득한 땅보조너고로**

72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낯선 마음으로 떠나나선 여행**

75 김은미 편집위원의 책을 읽다 오래된 미래

76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78 와칭코리아

82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지역취재임금**

85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광물 및 석탄광업 분야 용역업**

89 MOVIES

90 BOOKS

92 생활정보 가이드

96 1월 공지사항



새해 미션! 제한시간 3시간. 400개 도시락을 준비하라!

(글, 사진: 김영민 편집위원)

- 미션:** 400인분 도시락을 준비하라!
- 날짜:** 2010년 1월 5일 오전 9시
- 장소:** 플라빠가딩에 위치한 루코 1층
- 참가자:** 교민 주부 자원자 10명, 고등학생 5명.
- 준비물:** 양념에 절인 닭 400조각, 쌀, 오이, 당근, 케찹, 술, 가스불, 도시락 용기, 물, 식용유, 기타
- 시간 제한:** 3시간 30분
- 순서:**
 1. 닭에 튀김가루를 두 번 입힌 후 두 번 튀겨낸다.
 2. 쌀을 씻고 6개의 솥에 밥을 한다.
 3. 준비된 당근과 오이를 알맞게 썬다.
 4. 도시락 용기에 준비한 음식을 넣고 포장한다.

미션 시작!

3일간의 신년 연휴가 지나고 플라빠가딩에 위치한 한 루코(Ruko)의 일명 ‘가난한 이를 위한 무료 식당’에 오전 일찍부터 교민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로 안면이 있어 보이는 이들은 반가운 새해 인사를 잠시 하고 나서 비닐 장갑을 손에 끼고 바로 약간 얼어있는 닭고기 조각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닭고기들이 녹았다 싶으니 옆에 있는 이들이 준비한 튀김가루를 고기 구석구석에 정성스럽게 옷을 입히기 시작한다. 바로 옆 다른 탁자에선 ‘탁탁탁’ 도마 위에서 박자를 맞춰 싱싱한 오이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다. 또 그 바로 옆

에선 흰쌀을 씻는데 여념이 없다.

잠시 후 “피시식~”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수한 닭고기 튀김 냄새가 새록새록 빠져나온다. 하얀 김을 풀어내며 하얀 쌀밥이 솥 뚜껑 사이로 뽀얀 살을 내밀고 한 여학생이 덩치 큰 양푼에 담아낸다. 옆의 남학생은 투명 플라스틱 400장을 준비한다.

요리 끝! 도시락을 싸자! 몇 개의 탁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늘어 세워놓고 10명 정도가 정해진 듯 자리를 잡는다. 남학생들 플라스틱 도시락을 가지런히 길게 늘어 세우고, 이것을 받아 한 공기씩 따뜻한 밥을 채워 넣는 주부들, 그 옆으로 닭튀김, 오이, 당근, 케찹을 담아 두 여학생들이 스테플로 도시락을 봉합해 깔끔하게 끝마무리를 한다. 도시락을 담을 준비된 박스엔 100개, 200개, 300개, 400개의 정성스럽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도시락들이 순식간에 채워진다.

새해를 조금 넘긴 1월 5일 플라빠가딩에 위치한 밥퍼 행복센터에서 그려진 실화이다. 새해 첫 밥퍼활동에 15명의 교민들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참여한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빛은 즐거움과 감사로 빛났다.

“학생들 아얌(Ayam, 닭) 좀 가지고 와요. “넵^^;”

“현주야 차근 차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부서지잖아 (-,-*) “네 알았어요^^;”



가난한 인도네시아 빈민들을 위한 무료 밥퍼 봉사활동이 이미 2년을 넘겼다. 밥퍼해피센터는 지난 2008년 11월 정식 개원 이후 센터의 활동이 교민사회에 점점 알려지면서 많은 교민들이 봉사활동의 계기를 주고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최원금 씨, 바로 밥퍼해피센터를 개원한 주인공이다. 인도네시아 16년 차인 그는 선교사로 와서 한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을 담당했었다. 2002년부터 현지교회 사역을 시작한 그는 “이곳이 바로 제 예배당입니다”라며 판중쁘리옥 역사 내의 빈민촌을 가리킨 현지 목사의 말에 크게 감명받아 가난한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밥퍼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각 종교단체 및 교민, 로터리클럽, 학생들의 봉사에 힘입어 판중쁘리옥 역사 주변의 빈민들과 빈민학교 등에 매 주 3회 1000여명이 넘는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원금 씨에겐 하나의 숙제가 생겼다. 그들에게 어떻게 자립심을 심어주어야 하는가 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사역차원을 벗어나 범 교민 봉사활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는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지인을 소개시켜줘 봉제기술을 배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밥을 나눠주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은 필요한 것입니다.”라며 그들의 아픔을 잊은 적이 없다.

밥퍼해피센터는 1인 1개월 1구좌(10만 루피아) 운동과 각 교민단체의 후원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진 못한 편이다.



밥퍼해피센터를 개원한 주인공인 최원금 씨. 현재 각 종교단체 및 교민, 로터리클럽, 학생들의 봉사에 힘입어 판중쁘리옥 역사 주변의 빈민들과 빈민학교 등에 매 주 3회 1000여명이 넘는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미션 끝! 판중쁘리옥으로 출발!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12시 15분, 400인분의 도시락을 차에 싣고 판중쁘리옥 역사 방향으로 향했다. 노숙자들은 도시락을 실은 차가 나타나자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다. 어린이와 여자가 맨 앞에 위치하고 성인 남자가 뒤를 따랐다. 혼잡스러울 것 같이 예상되었던 배식 상황은 리더로 보이는 이가 주축이 되어 평화롭게 끝이 났다. 이전의 혼잡한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립심을 키우겠다는 최원금 씨의 의지가 조금씩 반영되어 있어 보였다.



노숙자들은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성인 남자 순으로 도시락을 받았다.



(왼쪽)쓰리아돈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밑)빈민들의 반 평 남짓한 생활터. 빨간 봉투에 싸여 있는 것은 이불이다.



(위)노숙 8년 제인 데위씨와 그녀의 아들 글렌. 초등학교 입학했어야 할 글렌은 하루 종일 엄마를 맴돌뿐이다.

(오른쪽)에바 씨는 노숙 5년 제이다. 남편의 직업은 아멘으로 하루 약 5~7만 루피아를 벌어들이지만 예의바른 그는 도움을 준 버스기사와 반씩 나눈다고...



쓰리아돈 씨와 아들 난다

남편과 사별하고 5달 전부터 노숙을 시작. 이전에는 중부 자카르타에서 기거했다. 주 수입원을 길거리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물병을 판매한 것에서 찾지만 평균 5천 루피아 정도라고. 대부분 수입은 아들의 식사 비용이 된다.

야띠 씨와 아들(17세)

노숙 3년 제. 남편은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데위 씨

노숙 8년 째. 이곳에서의 노숙은 1년째로 8세 된 글렌이라는 아이 있다. 글렌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넘근 그는 학교 대신 항상 엄마 곁을 맴돌고 있다. 데위 씨와 글렌은 가끔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노숙지를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에바 씨

노숙 5년 째로 5개월 된 아이가 있다. 지난 달 아기가 1개월 동안 폐렴증상으로 입원했었다. 남편은 뽕아멘(Pengamen, 거리나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구하는 악사)으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나 들어온다. 하루 수입은 약 5만에서 7만 루피아. 하지만 버스기사와 수입의 50%를 분배하는 것이 기본예의라고 한다. 에바 씨는 남편이 매우 예의가 바르다고 한다.



두 달 전부터 판중쁘리옥 역사 내 노숙이 금지되어 비가 올 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그나마 곳은 날씨와 밤의 한기를 조금이라도 피할 여지를 줬던 아늑한(?) 보금자리를 영문도 모르고 빼앗긴 것이다. 역사 옆 공터로 자리를 옮긴 노숙자 촌엔 남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아녀자와 아이들이 있다. 남자



들이 간혹 보이곤 하지만 그들은 역사 내 노숙자들이 이곳을 점령(?)하기 전 이 공터에서 체스를 두거나 포커게임을 즐기던 동네 사람들이었다.

노숙자들에게 주어진 반 평 남짓한 땅에 자리를 깔고 나면 피곤에 지친 그들이 누울 자리가 되고 아이들의 놀이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된다. 비닐포대에 빈틈 없이 쌓여 있는 것, 바로 밤의 차가운 기운을 잠시나마 차단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당연히 이곳의 위생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최원금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들이 자립심을 키워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지인을 소개시켜줘 봉제기술을 배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밥을 나눠주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은 필요한 것입니다.”

** 가난한 인도네시아 빈민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변엔 우리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민들도 적지 않다. 올 한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온정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교민 탐구 생활이 곳곳에서 더욱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밥퍼해피센터

최원금: HP 0811-809-515, wgchoi60@hanmail.net

Plaza Pasifik Blok A1 No.20, Kelapa Gading Permai Jakarta



승은호 한인회장

승은호 한인회장 연임, 한인회 3년 더 이끈다.

- 한인회 정기총회 통해 차기 회장으로 재 선출
- ‘한인회 변화위한 로드맵 구성해야’... 대부분 동의

송창근 한인회 부회장은 직접 차기 한인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 오는 등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한인회 변화를 지금부터 논의하여 차기 한인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차기 회장으로 승은호 회장을 추천하기도 한 조규철 부회장은 승 회장이 한인회의 성공적인 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여지를 뒤야 한다며 추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배정옥 이사는 여성들의 한인회 참여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현재 KOWIN(한국여성국제네트워크) 인니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배 이사는 현 KOWIN 회원 대부분이 한인사회의 주역이 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골고루 참여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한인회가 되기를 바랐다.

자리한 회원들은 변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한인회 홍보 강화, 한인사회 규모에 알맞은 조직개편 및 예산 확충, 국제협력 강화 등을 거론했다. 다수의 상근직과 사내복지가 우수하고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Jakarta Japan Club(이하 JCC, 한인회와 비슷)의 예를 들며 한인회의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한인사회 연령 분포에 맞춘 젊은 층의 참여확대가 성공적인 변화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봉사·열정 강조... 불우 교민 돕기 앞장서야

한인사회의 규모에 맞지 않은 지금의 작은 한인회로서는 교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회원들은 스스로 나서는 봉사와 열정을 강조했다. 대부분 직접 사업체

차기 회장으로 승은호 회장 선출

승은호 現 재인도네시아한인회(이하 한인회) 회장이 내년부터 3년간 다시 한인회를 이끌어갈게 됐다.

한인회는 지난 12월 18일 ‘2009년 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로 3년 임기가 끝나는 한인회장의 차기 선출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총 이사회 회원 55인 중 위임장을 포함 45인이 참석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한인회 회칙에 의거 승은호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다시 한번 3년 동안 한인회를 이끌어갈게 되었다.

한인회 변화되어야...

이사회에 참석한 대부분은 한인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변화의 주체는 한인회 이겠지만 그 목적은 인도네시아 사회내의 한인사회 역량과 위상에 맞는 한인사회 전체의 번영에 두고 있음을 동의했다.



송창근 부회장이 한인회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시간은 곧 금이지만 한인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하는 자세로 열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종후 이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교민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새로운 한인회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한인회 로드맵,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인사회와 함께 숨쉴 수 있는 한인회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

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금번 정기총회를 통해 한인회 변화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고 또한 회원들 대부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변화되고 있는 한인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에 긍정한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내부의 각성과 성찰을 통해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및 적절한 조직 개편, 예산확충 등 ‘발전지향적 한인회 로드맵’ 구성에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울일 예정이고 열정을 가지고 구성된 로드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교민들 스스로도 변화된 한인회 로드맵 구성과 실천에 동참하고 한인회를 바라보며 쌓았던 벽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노력도 중요한 대목으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인회 정기 이사회 총회 개최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는 지난 12월 18일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2009 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했다. 한인회 이사회 총 55인 중 위임장 포함 45인이 참석한 금번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의장인사, 업무보고 및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인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 선출 및 폐회 순으로 이어졌다.

승은호 회장의 부재로 의장을 대행한 김재유 수석 부회장은 “친목과 화합, 단결, 상부상조로 모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한인회를 만들어 모국과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를 만들자”며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김재민 사무국장의 금년도 결산보고가 이어졌고 송창근 부회장의 상공회의소 금년 보



고가 있었다. 이어 차기 신임 회장선출이 있었고 승은호 현회장이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차기 신임회장으로 재 선출되었다.

금번 총회에는 한인회 발전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새로운 한인회를 위한 ‘로드맵’ 구성에 동의,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한국신발협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신발협, 교민업체 초청 창립골프대회 개최

지난 8월 18일 25명의 신발협의회 발기인들이 모여 재 결성 된 재인도네시아한국신발협의회(이하 신발협, 회장 송창근)가 지난 12월 8일 신발협 창립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BSD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신발협 회원사뿐 아니라 한인사회 원로, 대사관, 코트라 등 공관과 한인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60여명을 초청되어 교민사회에 신발협의 탄생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잠간의 소낙비를 제외하곤 순조롭게 진행 된 골프대회에서 초청사들은 신발협 회원사와 한 조를 이뤄 신발협의 발전을 격려하고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송창근 신발협 회장은 “130여 개 회원 사, 12억불 매출, 7만 명 고용창출하고 있는 한국신발협회가 새로운 10년을 위해 재 결성 되었다. 타국의 근로자 인식 문제, 임금 문제, 급변 노동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신발 본거지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인니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축하를 하기 위해 참석한 승은호 회장은 예전 신발업계의 부진은 뭉치지 못한 데 연유한다고 말하며 “뭉쳐야 산다”라는 진리로 발전이 있기를 바랐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호영 대사도 “신발협은 봉제협 다음으로 많은 고용창출 하고 있고 비 에너지 분야 중 여섯 번째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효자사업으로서 인니 정부의 관심도 상당히 높다”며 인니의 좋은 여건하에서 신발협이 지속 발전해 인



송창근 신발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니 경제의 보탬이 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여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골프대회를 마치고 신발협 창립축하 행사에서 오세운 원로는 “축하합니다. 신발협회 탄생을~”로 창립축하 건배제를 통해 신발협의 발전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발전을 비는 원로다운 모습을 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신발협은 한인뉴스 발전기금으로 3천만 루피아의 성금을 승은호 한인뉴스 발행인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신발협을 이끌어가게 될 25명의 회장단 상견례가 있었고 연말 연시를 맞이

한인사회 소식



하여 주변의 불우한 교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행사도 이어져 창립을 더욱 뜻 깊게 했다.

한편 신발협은 한인뉴스 발전기금으로 3천만 루피아의 성금을 승은호 한인뉴스 발행인에게 전달하고 한인뉴스가 교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랐다.

‘신발협 결성을 기회로 침체된 분위기를 역전시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자’, ‘신발업체와 협력업체의 동시 참여가 협의회 발전의 중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협의회 발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겠다’ 등 협의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신발협 창립일 당시의 모든 회원들의 희망들이 금번 창립기념 모임을 통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 재인니한국신발협회 회장단

회장	송창근	KMK Global	신발
부회장	임철우	부경	신발
	이석태	UFU	신발
	곽삼섭	Bosaeng	신발
	조창식	백산	신세탁
	안상영	대화	가족
	홍준식	석세스	신발
	강주석	세림	스폰지
고문	서영울	Pratama Abadi	신발
	남상달	파크랜드	신발
	양승진	도손	신발
	김재유	동성	접착제
	하연수	서린	부자재
	양영연	보성	박스
	김영주	DEWA CITRA	슈 레이스
감사	송판원	고려폴리머	PU & 잉크
	최덕렬	신따 우성	텍스타일
	지동주	클린팩	박스
	김덕우	DW TRADE	신발
회계	정주성	대성	아일렛
	하치오	라버텍	아웃솔
사무총장	홍종서	한영	접착제/부직포
부사무총장	강호성	ACMI(구 신일)	물더
	이경선	KS TRADE	신발
	윤석환	성신	파이론





교민들, ‘한사람 한나무 심기 운동’ 적극 동참



자카르타 인근 카라왕 지역 조림지역에서 대사관과 한인회가 공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2월23일 개최된 금번 행사에는 대사관,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산림부 줄키프리 하산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2천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총회와 인도네

시아 식목기간에 맞추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나무심기에 우리 교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한-인니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조림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양국 관계자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12월 8일 반둥에서 열렸던 인도네시아 산림부 주관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한국의 산림복구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호영 대사로도 “70년대 우리 전 국민들이 동참한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운동을 통해 전국적인 민둥산들이 푸르른 산으로 변모하여 지금은 나무들이 인간들에게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이곳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사관과 우리 한인회가 합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기업들이 이곳 인도네시아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이곳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줄키프리 하산 산림부 장관은 우리 교민들이 합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사람 한나무 심기운동”에 동참해 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나무를 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룬편 양묘센터에서 생온, 마호가니 등 그 동안 기른 묘목 1,000 그루를 심게 되어 더욱 뜻 깊었다.



위: 줄키프리 하산 산림부 장관이 교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목을 하고 있다.

아래: 가족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민들.





음악은 이렇다!

- 자카르타 재학 교민 자녀 글 미국 3대 일간지에 실려 화제

자카르타에 재학중인 교민 학생의 글이 미국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지에 실려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자카르타 국제학교(JIS) 11일 학년에 재학중인 안선민 학생이 그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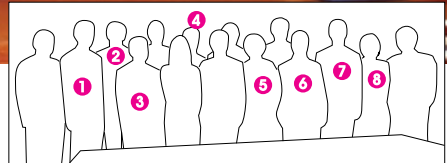
평소 글쓰기를 좋아한 안선민 학생은 영어 시간에 음악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쓴 글이 글이 이와 같은 유력지에 실리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안선민 학생은 ‘음악은 죽었다’, ‘클래식 음악만이 음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 현대 음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며 현대 음악 또한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의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운 음악이고 재즈 클럽에서 들리는 재즈 음악가의 개성 넘치는 즉흥곡, 피아노 건반을 한번에 누른 것 같은 시끄러움 속에서 나오는 폴리포니의 조화, 이 모든 현대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소견을 유려한 필체로 그려냈다.

<http://www.chicagotribune.com/news/opinion> 이나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Vicky Ahn을 찾으면 그의 글을 볼 수 있다.



지난 12월 30일 대사관에서 2009년도 모범 교민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8명의 모범교민들과 김호영 대사, 변철환 영사, 배도운 한인회 부회장, 신기엽 한인회 부회장, 김재민 사무국장 및 지인들이 참석했다.



2009년도 모범교민 표창자들.
 1.구용범(LG 전자), 2.노예범(삼 뿌르나)
 3.김봉호(호전실업), 4.최원금(밥퍼해피센터), 5.조은정(미성), 6.김선필(삼익), 7.홍종렬(코린도), 8.김영희(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김호영 대사, 모범 교민에 표창장 수여

지난 12월 30일 오전 김호영 대사는 2009년 한해 교민 사회의 모범을 보인 모범 교민 8인에 대한 감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교민들은 평소 남다른 조국애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한해동안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밥퍼사역, 빈민학교사역, 빠당지진현장 구호활동 등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쉽지 않은 봉사를 지속적 해오고 있어 표창장을 받게 된 최원금 선교사는 빈민들을 위한 봉사에 지금껏 동참해준 모든 교민들이 바로 표창장의 주인이라며 전 교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영희 씨는 2005년 부터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을 이끌어 오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예술 체험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어 수상 대상이 되었다.



LG전자의 김봉호 씨와 조은정(미성), 김선필(삼익)과 홍종렬(코린도), 노예범(삼뿌르나)씨는 투철한 책임의 식으로 열정적인 회사 생활 뿐만 아니라 현지노동자들과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성립과 한국인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 있어 수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노예범 씨는 종업원의 10%를 정신파약, 지체부자유자 채용을 목표로 장애인 사회진출 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사회 봉사의 기업윤리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단아하게 한복으로 차려입은 자필묵연 회원들이 제5회 '자필묵연전' 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깊이가 더해진 '자필묵연전'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인 '자필묵연' 회원들의 정기전이 올해로 5회째를 맞게 됐다.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전은 규모면에서 기존의 정기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일상에서 찾는 운치'라는 주제로 자필묵연 43여명의 회원들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그간 교민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서예 문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003년 자카르타에 정착한 후 활발한 작품활동과 함께 교민사회에 끊임 없이 문화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는 인재 손인식씨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자필묵연'은 현재 자카르타는 물론, 땅그랑, 쪰부부르 지역까지 넓어져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이제 5년을 넘긴 교민 서예 역사의 깊이를 품어내고 있다.

회원들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글씨 한자 한자 또박 또박 써내려 가는 가 하면 때로는 힘차게 또 때로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필묵을

이어가며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간 작품들 앞에서 가족과 함께 사진기 앞에서 즐거운 포즈를 취했다.

5년 동안 자필묵연을 지도하고 있는 손인식 씨는 “고희를 넘긴 나이에 밤늦도록 필묵과 씨름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가 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쁜 중에도 그 틈을 또 나눈 가장들, 가사와 아이 교육에 분주한 주부가 시험 공부하는 학생처럼 필묵에 열중했습니다.”며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견뎌내야 했던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인사회에 서예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정기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되어 교민들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광현 씨 대통령 공로장 수상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정당성과 정부의 실용적 통일정책을 교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김광현씨가 2009년 6월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장을 끝맺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공로장을 전수 받았다.

2007년부터 2년간 민주평통서남아 협의회를 이끌어 온 김광현씨는 협의회장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발전과 국민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주장 말하기 대회 및 글짓기'를 개최 해 자라나는 교민 자녀들에게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 사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우리프리스티지클럽, 불우한인돕기 사업 확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친목과 정교류를 통한 회원들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2005년 설립된 우리프리스티지클럽(회장 이진수)이 지난 11월 20일 골프모임을 갖고 친목을 돈독히 했다.

현재 63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프리스티지클럽은 전 회원이 모이는 정기모임을 연간 두 차례 개최해 회원사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땅거렁에 있는 꿈나무학교 성금 전달 및 회원사들의 기증물품을 사랑에 전화에 기증하는 등 불우한인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프리스티지클럽은 올해는 그 취지를 살려 불우한인돕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I 한국학과 학생들 대사관저에서 즐거운 오후 보내

대사관(대사 김호영)이 지난 12월 5일 정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한국학과 학생과 교수 약 150여명을 대사관저에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사관은 대학생들과 함께 어루러진 장기자랑, 노래자랑, 마술쇼 등을 통해 더욱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냈다.

또한 대사관은 정성스럽게 장만한 한국음식을 학생들에게 대접하고 지난 11월 UI에서 한국학과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한국문화의 날’ 행사의 성공을 치하하고 미리 준비한 선물들을 학생들 하나 하나에 나눠주며 양국관계의 증진에 기여해주기를 당부했다.

뜻밖의 초대를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대사관에서 준비한 하얀 칠판에 “대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등 또박 또박 한글로 방문 소감을 남기는 등 감동적인 초대에 감사함을 표했다.

2007년 8월 인도네시아 최초 4년 정규학사과정으로 UI에 개설된 한국학과(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과)는 올해 7월 인도네시아 최초의 학사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월드옥타 인니지회, 훈훈한 송년의 밤 열어



지난 12월17일(목) 자카르타 KAPUK GOLF장에서 열린 09'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인도네시아지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호영 대사, 김남규 상무관, 김병권 KOTRA 자카르타 센터장, 월드옥타 인니지회 회원부부, 차세대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친목을 가졌다.

2009년 세계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선 보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인도네시아 지회는 지난 4월 제11차 세계 대표자회의 와 10월에는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 하였다. 지난 빠당지역 지진시에는 회장단 긴급 대책회의를 통하여 바로 3일만에 1억5천만 루피아 상당을 모금하여 빠당 지역 사무소에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12월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외경제인대회 결과보고와 이종현 (현 완구협회 회장)부회장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한편 한국일보에서 선정하는"세계를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상"에 김우재회장, 최동목 부회장 , 배응식 부회장이 선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동포의 위상을 빛내기도 했으며 연중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현 인니 국회의장을 월드옥타 고문으로 추대해서 현지인과의 교류도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옥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에 직접 가입을 함으로써 한국 교민단체로서는 최초로 현지 상공인들과 같은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정기 총회 당일 오후에는 회원 사 약50여명이 KAPUK 골프장에서 하반기 OKTA 인도네시아 골프 대회를 가졌다. 골프 대회를 마치고 모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가족과 같은 즐겁고 훈훈한 밤을 보냈다.



삼익약기가 지난 11월 23일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23명에 1인당 연간 300 달러 지원한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겪는 학업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익약기, 지역 학생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

삼익약기(PT SAMICK Indonesia)가 지역의 우수한 학생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삼익약기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르 쩨릉시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인 SMA Negeri 1에 방문하여 학생 중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23명을 추천하여 1인당 연간 300 달러정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영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더 많은 학생들이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겪는 학업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 MR. DACE SUPRIAD, 쩨릉시 지역 교육부 국장 MR.RABYAIM KUSBA, 쩨릉시 면장 MR.DEDI SUHADRI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한국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삼익약기는 이전부터 회사 지역 초등학교에 약기 및 영어교육부분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런 교육 지원부분을 지속 확대하여 고등학교뿐만

만 아니라 향후 대학교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익약기는 독일의 SELER PIANO 회사를 인수하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피아노 회사인 STEINWAY PIANO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로서 피아노업계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KOWIN 인니지회 야심차게 새해 활동 시작

- 한글학교, 쌀나누기 운동, 카운셀링, 의료봉사 등 사회 곳곳에 봉사 활동 개시

2009년 11월9일에 공식 출범한 제4기 KOWIN 인도네시아 지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 연말연시를 교민들의 숨어있는 고충을 헤아리고 덜어줄 수 있는 활동을 우선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밀알 한글학교 ★

동포어린이, 다문화가구 자녀, 인도네시아인에게 한글을 전파하는 밀알한글학교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선생님을 확충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교사채용 및 교사의 지위 향상, 그리고 예능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었다. 이제 방학을 맞은 밀알한글학교는 더 알찬 내용의 한글교육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도록 새학기 준비에 들어갔다.

	교사		수업 일시
행정업무	강미경		
자카르타 한글학교	유희정 강승은	유치부 초등부	매주 토요일 2시간
밀알한글학교 땅그랑		초등부 성인부	매주 토요일 1.5시간
밀알 한글학교 찌까랑	김석주 한은희	유치부 성인부	매주 금 토요일 2시간

★ 동포 쌀나누기 운동 ★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갖고 있는 동포에게 온정의 쌀과 라면을 배포하는 작업이 자카르타, 땅그랑, 및 찌까랑 등 3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땅그랑 에서는 교민교회와 손잡고 “동포의 온정을 담은 국밥운동”에 기금을 전달함은 물론 쌀과 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옷과 생활용품을 나눈다.

지역	담당	전화번호	기타
자카르타	유희숙	0813-8504-0501	주1회
땅그랑	교민교회 김재봉 목사	021-5576-7508 546-9832(사택)	매일 점심시간
찌까랑	김일순 김석주	0858-8838-5758 021-9288-7385	주1회

✓ 이 아름다운 나누기 운동을 각 지역에서 담당하고 봉사자는 기탁자와 수혜자, 또는 봉사희망자 모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 어깨동무 카운셀링 ★

가정내부 혹은 대인관계 중 빚어지는 갈등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2010년 2월부터 시작되는 카운셀링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KOWIN회원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적극적인 경청과 대화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 별로 특화된 무료 성격유형 테스트도 마련된다.

	시간	연락처 및 장소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저녁5시	(021) 9826-7921 / 7925
방문상담	월~금 오전9시~정오	KOWIN 사무실
MBTI (초등3~중등2)검사	매주 수요일 오전9시~오전10시	KOWIN 사무실
MMTIC (중등3~성인)검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2시~오후4시	KOWIN 사무실

✓ 2010년 2월에 개시되며, 여러 교민소식지를 통해 재 공지될 예정



★ 동포어르신 의료봉사 ★

남부자카르타다르마왕사스퀘어에 소재한“술 한의원”에서는 65세 이상의 동포에게 무료 건강상담 과 골다공증검사를, 50% 할인된 침 시술을 제공함으로써 동포대상 복지사업을 돕고 있다. (술 한의원: 021-7278-8287)

★ 분기 별 추진사업 ★

2010년에는 경제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홍보분과, 사회복지분과 등 각 분과 별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 ✓ 3월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회>, 한글교육 관련 주제강의와 각 학교의 정보교류
- ✓ 4월 <김치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치 만들기와 시식행사
- ✓ 6월 <백일장>, “여성”을 주제로 장르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교민이 참가하여 글 솜씨 자랑
- ✓ 10월 <문화탐방>, 서부자바문화의 진수인 반둥지역 체험
- ✓ 12월 <경제포럼>, 여성의 경제의식 고취 강연회

제 4기를 맞이한 KOWIN인도네시아 지회는 다양한 개성과 특기, 봉사와 참여의식이 투철한 한인여성들의 주축이 되어 2010년에 큰 발전과 변화를 이룰 것을 기대해 본다.

회장: 배정옥 (0812)807-8607
<http://cafe.daum.net/kowinjakarta>

배정옥 씨,
제4대 KOWIN
회장으로 취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배정옥 인도네시아지회장 취임식과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9일 저녁 자카르타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렸다.

취임한 배정옥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여성전문 인력이 사회에 더욱 활발히 진출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봉사와 협력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문화활동에 만족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고 4대 KOWIN의 나아갈 방향을 전하며 “남성은 이런, 여성은 저런 역할이라고 규정된 신화를 버리고 기존의 규범, 고정관념을 떠나 여성들 안에 있는 모성의 거대한 힘으로 양성평등의 사회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며 포부를 밝혔다.



중부자바한인회, 송년 골프대회 및 송년회 가져

지난 12월26일 중부자바지역 한인/회원 사/외부 손님 등 150여명이 스마라에 소재한 곰벨골프장/식당에 모여 2009년을 보내며 골프 대회 및 저녁식사와 행운 권 추첨 등으로 모든 참가자가 상품을 받아가는 보다 풍성한 연말 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냈다.

문태우 씨가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차지했고 우승에 김대영 씨, 이현후(2등), 강중중(3등), 손성효(롱기스트/남자), 이영선(롱기스트/여자), 이희권(니어리스트/남자) 씨가 차지했다.

김재훈 한인회장은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로 당 지역의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한인 서로의 합심된 마음과 협조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금년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가격 경쟁을 이겨내고 더욱 튼튼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한인회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자고 했다.

한편 2009년 12월로 2년간의 한인회장 임기를 마치게 된 김재훈 한인회장은 교민들의 재임요청과 회장의 수락으로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 지면 관계상 협찬 및 찬조하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2010년 중부자바한인회 사업 계획(안)

- 1) 현지 대관 및 대민업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유지 노력.
- 2) 한인회관 설립운영 계획(안)
(모임 및 휴식 공간/도서실/현지인을 위한 한글교육 및 컴퓨터 교육장/기업을 위한 행사장)
- 3) 한글학교/장학사업 운영 계획(안)
(한글학교 및 한인학생 장학금지원/ 현지학교와 자매결연 및 장학금지원 등)
- 4) 단체 및 모임 활성화(안).

부녀회/낙시동호회/등산모임/골프모임/종교모임 등의 단체 및 모임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 활성화.

***. 2), 3)항은 단 시일 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한인회원사와 한인들의 협조로 쉬운 일 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며, 일 정부분은 대사관 및 동포재단의 지원 요청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ROTC 인니 지회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2009년 ROTC 인도네시아 지회(14기 최재원)가 지난 12월 5일(토) SENAYAN 골프장에서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가족과 함께 이웃과 나누는 ROTCIAN의 송년의 밤'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 모금을 하여 한나프레스 인도네시아가 벌이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활동에 생활 필수품 일체를 담은 물품 50박스를 전달하였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송년의 밤은 동문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하여 1부 의식행사, 2부는 현 지식과 한식을 곁들인 만찬, 초창밴드 연주,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여러 동문들의 많은 협찬품을 함께 나누며 타국에서의 가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진행되었다.



KOICA, 인니 재난 조기경보전파시스템 구축완료



KOICA(소장 이종선)는 12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 기상지질센터(BMKG), 재난복구청(BNPB), 과학기술원(LIPI), 텔콤셀, TVRI, RRI 및 사업시행자인 SK C&C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재난 전파시스템은 인니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을 첨단 통신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 확대 시 인도네시아의 빈곤감소 및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IT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장 이종선)은 12월 11일 오후 2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 기상지질센터(BMKG), 재난복구청(BNPB), 과학기술원(LIPI), 텔콤셀, TVRI, RRI 및 사업시행자인 SK C&C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지난 2년간 총 300만불 규모로 지원된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이 이미 실용화하고 있는 IT기반 정보 전달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발생시 핸드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4년 아체 쓰나미 발생이후 재난관리법 제정, 전담기관 설치 등을 통해 국가 재난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재난 발생 시 경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체제구축에 관련기술 및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급변 한국 측 지원을 통해 자카르타를 비롯한 아체, 벵쿨루, 반뜰, 족자, 꾸뵘, 암본 등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재난 민발 지역주민들이 재난정보를 TV, 라디오 뿐만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CBS 시스템) 적기에 받아 대피할 수 있게 되어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재난 전파시스템은 인도네시아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을 첨단 통신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 확대시 인도네시아의 빈곤감소 및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IT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권

코트라 자카르타 KBC 센터장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강국’, 외자투자증대를 위해선 관료부패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제고를 위해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김병권 코트라(KOTRA)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장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대국 잠재력은 점점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관료부패와 행정절차 불투명 때문에 경제대국 도약이 더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先개발 後빈곤퇴출’이라는 순서를 밟아 경제를 육성시켰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인니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에 대한 예산편성을 줄일 수 없는 행정내각의 정치적 판단도 더디어지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병권 센터장은 “러시아가 포함된 브릭스(BRICS) 대신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비시스(BICIS)가 부상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큰 잠재력 가진 ‘미래의 강국’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 젊은 인구구조,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인도네시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G20(주요 20개국)의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직은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달러대의 낮은 수준이지만 2억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이다.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불안과 부패 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냈고, 지난 7월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안정 속에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 비중이 60% 이상이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구촌이 휘청거린 올해도 4.5%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5.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전 자카르타 자카르타 코트라 관장으로 부임한 김병권 관장은 한-인니 양국 무역 및 투자 증진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올 초 한국으로 귀임하게 된다.

“최근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일관제철소 합작 건설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것은 연관 산업 진출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김 센터장은 “취약하고 수요가 많은 조선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산업 등에 투자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까지 총 4천Mw 규모의 원전 장기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계약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에 대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IT 투자 확대 그리고 소비계층 분화에 대비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 등을 꼽았다.



한인뉴스 편집부

한인뉴스와 한인뉴스후원회가 교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한인뉴스는 교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 동고동락 할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심양면 후원해 주고 계시는 광고후원사와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 아끼지 마시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인뉴스, 한인뉴스후원회 일동 -

한인뉴스 후원회





調心虎視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 눈빛으로 살피다.)

그림: 蘭 / 謹賀新年 / 2010, 庚寅年 元旦 仁齋
 네 귀에 새김 / 調心虎視 /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 눈빛으로 살피다.

또 한 해를 맺습니다.
 끝맺을 수 있음은
 과정이 무난했다는 증거이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맺은 작품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절대 실패작이라 말하지 않으니
 또한 행복입니다.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을 품으라 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 스스로
 작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庚寅年,
 마음을 가다듬고(調心)
 호랑이 눈빛으로 살피소서(虎視).
 거기,
 ‘환희의 발견’ 이 기다릴 것입니다.
 날마다 강건하게 거듭나소서.
 세상의 주인으로 사소서.

2010, 경인년 새해 아침
 인재 손인식 삼가



루비로 가득찬 **붉은** 주머니
천연 에스트로겐

델리마

아니 이럴수가...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째 살고 있지만 이런 과일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름은 델리마인데..어디서 본 듯한 모양의 과일.. 한국말로 하면 바로 '석류'라는 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 석류가 대단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광고노래가 히트를 치며 웰빙 열풍을 타고 기존의 음료시장의 판도를 바꿨을 정도로 석류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석류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 그 효능을 톡톡히 알고 있지만 현지 시장에서 델리마라는 통째 과일을 보고는 이것이 석류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델리마가 석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왜 여태 몰랐을까하는 탄식과 웃음이 들더군요. 인도네시아에서 석류, 델리마를 만나게 되다니.. 이름만 들어도 새콤달콤 상큼합니다. 여성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더 유명한 델리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델리마의 학명은 *Punica granatum L.*입니다.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석류나무과 석류나무속에 속하였습니다.

델리마의 원산지는 페르시아(현재 이란)로 아열대 지방에서 널리 재배합니다. 특히 터키, 이란, 인도 북서부,

파키스탄 등 해발 300~1000m 지대로 석류는 인류가 재배하는 과일나무 중 가장 건조한 지역에서도 견디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pomegranate이라고 부르며 라틴어의 pomum(사과)와 granatus(씨가 있는)가 합쳐진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delima라고 부르며, 한국에서는 석류라고 부릅니다.

델리마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크기는 주먹크기보다 살짝 크며 단단하고 둥그스름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꼭지 부위가 위로 2,3cm가량 솟아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불만이 있어 꼭 입술을 뽀루통 내민 모습입니다. 칼로 살짝 잘라 손으로 짜개면 무수한 빨강고 투명한 과육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과육들은 하얀 낭으로 싸여 균일하게 줄을 맞추고 알알이모여 마치 보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육 하나하나에는 씨앗이 들어있으며, 같이 먹어야만 델리마의 탁월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델리마를 먹을 때 새콤한 과즙만 먹고 씨를 뱉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이 델리마 씨앗에 많이 함유돼 있으므로 씨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델리마의 한의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은 온하고 미는 산 감하며,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 족양명위경, 수양명대장경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석류피라 하여, 산석류를 과실이 익어서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종자를 제거하고 내막(內膜)을 벗겨낸 다음 겉껍질을 말려 약재

로 사용하는데 만성적인 설사, 이질, 유정(遺精), 대하(帶下) 따위를 멈추게 하는 데나 변혈 치료, 구충에 씁니다. 또한 목 안이 마르는 것과 갈증을 치료하는 과일로 목이 쉬거나 부었을 때 먹으면 좋으며 껍질은 말려서 편도선염의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맛이 강한 석류는 많이 복용하게 되면 위장과 폐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텔리마는 피부 주름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텔리마는 꽃, 잎, 열매, 뿌리 모든 부분이 약재로 사용되는 건강식품입니다.

텔리마 씨에는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론과 에스트라디올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연구에 따르면 텔리마씨 1kg 중에는 10~17mg의 여성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추, 야자꽃가루 등이 3.3mg 안팎의 여성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텔리마추출물(석류추출물)은 폐경 후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텔리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외에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픈 여성에게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신경과 시신경에 효과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 B₁, 지능저하와 기억력감퇴, 알츠하이머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 B₂는 물론, 체내의 에너지대사에 꼭 필요하며 구강염과 구내염에 효과적인 나이아신, 단백질 대사를 유연하게 진행시키는 칼륨,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철분, 아미노산, 타닌, 아스파라긴산, 플라보노이드 등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껍질의 타닌 성분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시켜 입맛을 돋우고 인체의 에너지대사를 도와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텔리마는 액기스로 만들어 주스처럼 물에 타 마시기도 하며, 잼으로도 만들기도 하며, 샐러드를 만들 때 텔리마 열매를 넣게 되면 새콤달콤하면서도 툭툭 터지는 씹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텔리마는 설사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신맛이 유산이 들어있어 많이 먹으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염환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게 잘 익은 석류는 껍질이 갈색에 가깝고 껍이 약간 갈라져 속이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텔리마 열매는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쫄 정도로 신맛과 단맛이 강하며 식욕을 돋웁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대과일이 점점 질려갈 때 알알이 영양이 가득한 텔리마를 찾아 먹는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여름 날씨 속에서 피로를 풀어주고 상쾌함과 활력을 찾아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술환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재인니한국부인회 회장
홍 미 숙

” 교민사회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이 부인회 올해 KOWIN과 협력해, 불우 교민 돕기. 카운셀링·외국인대상 요리강습 등 전개 계획



2010년 새해의 힘찬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불안 속에서 무언가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한 해를 살아 온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서로 도움을 자청하고 사랑을 베풀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덕분에 이 밝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 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아직도 각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겹쳐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노력해 나아가갈 때 우리는 더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게 되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됩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는 그런 희망으로 말이지요.

부인회의 살림을 새롭게 맡아 왔던 지난 일년을 뒤 돌아 보니 원래 계획했던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묵묵히 잘 따라와 주신 임원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민사회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부인회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각종 교민들의 문화 행사와 경조사에 화환과 찬조금을 전달하고 참석하여 축하하며 격려하였고 MBTI 개최와 한국 국제학교 및 인

도네시아대학교(UI)에 장학금을 지원, 한국어 요리책 만들기, JIKS 앨범 만들기 등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6월 중 영사과 민원 봉사를 통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음식 만들기 강습과 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인니 빠당 지역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구호품과 성금 전달, “사랑의 전화”를 통하여 한인 동포를 위한 구호품 전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위한 자금 확충과 한인 기업들을 현지와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자 저희 임원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It's Korea” 제 2권의 발간을 계획했는데 상당히 늦어지게 되어 광고주들께 이 지면을 통해 사과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인니지회와 함께 어려운 한인 동포에게 음식과 쌀 나누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김치 만들기 강습과 한국 음식 만들기 대회, 한국 학생들을 위한 예절판 만들기, 카운셀링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공동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그 조그만 협조와 희생은 많은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한 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며, 긍정적인 사고와 겸허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자바한인회장
임택선

올 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랑이의 용맹하고 힘찬 기운 가득 받으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며, 지난 한 해 저희 동부자바 한인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교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동부자바 한인회를 물

심양면 후원해 주시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호영 대사님,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님,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승은호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이든지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마는, 2009년 한 해 역시 저희 한인사회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굳이 나누다면, 2009년 새해 첫 날부터 2008년 12월31일 발생한 자살사건으로 인한 장례식에 2009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연이어 발생된 자살미수, 2건의 사망사고로 인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 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수라바야시 한복판 2,660m2 부지 위에 한국 공원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에 약 6천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되어 한국을 더 자세히 알리는 장이 되었다는 뿌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며, 언제가 할 것이면 지금하고 누군가 할 것이면 내가 하고 이왕 할 것이면 잘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재인니동부자바한인회 제 23기 회장직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결실을 거둘까 합니다.

이에, 첫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즐기며, 또한 경제 활동을 하시기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라바시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라바야시와 공동으로 한인 투자업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하며, 한인 진출기업에 필요한 각종 세미나를 유치하며, 3회 정도의 예술단체를 초청하여 문화행사 개최와 상품 전시회 등등을 유치하여, 현지 지역 사회에 한국의 경제 발전상과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저희 교민 분들도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혜택을 받아 먼 이국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질을 향상 시키고, 고국의 향수와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고국에 대한 정체성을 심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에 한국을 부각시키는 차원에 1,800여명의 교민이 단결하여 현재 건설 중인 한국공원을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2,660m2의 부지에 기존의 인도네시아 공원 형태를 벗어난 디자인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되어 이곳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국인의 넋을 기리는 약 6미터 높이의 추모탑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새겨 연못 한 가운데 추모탑을 건립을 하며, 추가 시설물로 팔각정을 지어 높이 약 1미터, 폭 60센티 크기의 범종을 설치하여, 매년 년 초에 타종식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현재 팔각정 건립과 범종 구입이 불가능하여 여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뜻있는 교민 분들이 계시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올해 경제 역시 녹녹치는 않은 현실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패기와 열정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충만한 우리 교민 분들은 올 한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하고 긍정의 힘을 믿고 도전하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봅니다.

Noday but today.... 우리에게엔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이 순간,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일 것입니다.

2010년 경인년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문화 홍보 박차를 가할 터 ”



반동한인회장
엄정호

2009년은 각 사업장마다 어려운 세계 경제 가운데 각고의 노력으로 보낸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룩진 반동 교민 사회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합니다.

특히 교민들의 직접 선거로 제5대 반동한인회 김재용 회장 당선을 지면으로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반동 모든 교민이 새로운 각오로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반동한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모든 소망과 하시는 사업장의 건승의 축배를 바랍니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되며, 향수 가게에 가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족자카르타한인회



족자한인회장
조현보

먼저 인도네시아 전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환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한 해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희망의 꿈을 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2010년에는 대박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족자한인회에서는 2010년 활동 목표를 족자지역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고 널리 알리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중의 하나로 이번 2월14일 구정에 족자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국노래자랑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족자에 한국인이 터를 잡고 살기시작한지가 이제 20년이란 세월이 됩니다. 그동안은 현지 주민들과 이웃이라는 공개념이 없이 오직 이방인으로서 그저 열심히 일만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성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기보다는 현지인들과 거리를 좁히고 현지사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우리를 녹여서 하나가 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타지 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교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이주 20년...
이방인에서
현지의 이웃으로

”



중부자바한인회장
김재훈

”
대인니정부 관계개선,
한인회관 설립준비,
장학·문화사업 전개할 터
”

중부자바 한인사회는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올 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든 회원 사 및 한인들의 단합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더운 이국 땅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문화적 차이와 공무원들과의 이해부족 등으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 대사관의 협조 및 각 주요단체의 노력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방이다 보니 현지공무원들의 협조가 늦고, 신 정부의 장관, 차관 및 청장 급의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관계로 업무진행의 속도가 지연되는 점들이 힘든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중부자바 한인회는 올해 대 인니 정부 및 대민 관련 사항 개선을 위해 현지 관계기관과의 더욱 원활한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며 어려운 부분에 한해선 우리 대사관과 주요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한인회관 설립준비와 한인 학생 및 현지학생들에 대한 장학, 문화사업들을 쉬운 것부터 하나씩 전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급상승하는 인건비와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한인들의 은근과 끈기로 잘 극복하고 더욱 단합하여, 뿌리내리고 번성하는 한인 기업 및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KOICA



KOICA 인도네시아 소장
이종선

”
인니개발협력규모 확대 예상
교민들의 격려와 성원 부탁
”

새해 경인년에는 교민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대표하여 지난해 베풀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정부의 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업무를 수행하는 KOICA는 우리나라가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한편, ICT, 산림·환경, 산업·에너지 분야 등에 여러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한-인도네시아 우호관계 발전에 작으나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KOICA의 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희 사무소도 성과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인니한국봉제협회(KOGA) 회장
배도운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KOGA 회원사 가족들과 재인니 교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은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저희 KOGA 회원사에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저희

회원의 주요 시장인 미국이 금번 경제 위기의 근원지로서 불황의 골이 깊었던 관계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회원사 모두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봉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성장을 꾀함으로써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회원사의 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지난 한 해 동안에 쓰신 회원사 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제 임가공에 대한 부가세 폐지 등 저희 회원사 사업 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호영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불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년도 저희 회원사에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대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루피와 환율과 경기와 무관하게 매년 10%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임금과 같은 대내적인 악재와 바이어 측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 요구와 같이 대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회원사가 금년 보다 어려웠던 지난 2009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질적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듯이 당면한 금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인니 한인 의류 수출업계가 걸음마를 하던 시기에 태동한 저희 KOGA가 지난 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원사들은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여 지금은 인니 전체 의류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300여 회원사들이 약 50만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연간 25억여불의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저희 회원사들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원사 가족들은 물론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회원사의 활약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KOGA가 교민 사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KOGA는 설립 목적 상 회원사 간의 친목 단체이므로 그 활동 범위가 제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교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사들의 중지가 모아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입니다.

저희 KOGA 전 회원사는 2010년에도 인니 의류 수출 산업의 주역으로서 교민 사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힘쓸 것입니다. 저희 회원사들이 금년 목표한 바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승은호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전 교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사 가족들과 재인니 교민 모든 분들께 2010년 경인년 새해가 지난 해 보다 훨씬 나은 전진과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2009년 창립 20주년, 세계적 불황불구 양적·질적 성장 이뤄내.. 올해, 교민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단체로 ...

”

민주평통 인니지회



민주평통 인니지회장
김 광 현

”
실용적 평화통일정책,
교민과 인니 정부에
홍보 강화

2010년 민주평화통일 인도네시아 지회는 매일 한인뉴스 평통소식란 개설해 평통소식들과 각 지회별 소식도 전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인니지회의 새로운 서광이 비추고 있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도 말없이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자문위원 24명 모두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의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 시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탄탄한 안보의식과 인도네시아 교민통합 및 화합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평화통일 운동의 중심에 서서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유는 우리 교민은 물론 현지 유력인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니 주재 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고국의 통일정책과 의지 그리고 변화된 통일환경을 확실히 이해시키는 한 해로 만들어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새로운 위원들과 함께 출범한 제14기 민주평통 인니지회는 각 위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일체를 이루는 한인사회 건설과 민주평화통일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니지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M) 회장
배 정 옥

”
부드러운 강인함,
한인여성 역량 맘껏 펼친다

제겐 KOWIN 인도네시아 지부라는 큰 과제가 주어진 두근거리는 첫 해입니다. <부드러운 강인함>으로 세계를 누비는 우리 한인여성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활동들을 개시할 때가 된 것입니다.

KOWIN은 성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끊임없는 관심으로써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사업들을 펼쳐갑니다. 한민족의 자랑인 우수한 한글을 계승해 나가는 <밀알한글학교>, 마음의 짐까지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어깨동무 카운셀링>, 그리고 동포애 그득한 <사랑의 쌀 나누기>에 사랑이 넘치는 회원들이 직접 전문 교육도 받고, 봉사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하였습니다. 가장 좌절할 순간, 백 마디의 말보다 어깨를 꼭 쥐어주는 손길이 더 그립고, 천마디 고백보다 사랑을 담은 시선만큼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KOWIN도 심성 고운 행동으로써 한인여성의 아름다움을 가꾸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며, 체계 주어진 이 아름다운 소명에 젊은이 못지않은 헌신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인 교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며, 목표한 바를 이루는 희망의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니문화연구회 회장
사 공 경

고래를 찾아

어느 시인이 ‘고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고래처럼 건 강한 바다의 아이콘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보이지 않아도 바다 안에 고래가 있듯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는 한 민족의 생생한 아이콘입니다. 고래를 만나고픈 마음으로 우리는 매달 문화탐방길에 나섭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낯설고 거대한 바다를 향해합니다. 고래를 기다리는 일은 행복합니다.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탐방팀의 마음엔 어느 샌가 바다가 들어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움을 따라 나선 길에서 하늘을 향해 치솟은 이름드러나무를 만나면 미래에 대한 다짐과 자신을 돌아보는 상념의 시간을 갖고, 폭우를 만나면 걸음을 쉬고 서로의 마음을 찾잔에 담아 마스하게 차를 나누면서, 길마다 새겨진 역사를 만나는 탐방길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탐방이 벌써 173회를 넘었습니다. 매주 떠나던 탐방이 한 달에 1번 정도로 매달 떠나는 횟수

가 줄었지만 내용은 훨씬 깊고 넓어진 탐방이라고 자부합니다. 회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찮게 시작한 탐방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 모임을 사랑해 준 덕분입니다. 올해는 더 알찬 탐방계획으로 더 많은 교민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니문화의 중심지-족자와 함께 풍요롭고 신나는 한해를 만들려합니다. 탐방과 더불어 인니문화를 주제로 한 열린 강좌(1달 혹은 2달에 1번)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또 가끔씩 만나는 부모님들로부터 백일장과 시낭송회를 다시 개최해 달라는 부탁을 들을 때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호응해주었던 두 번의 청소년백일장, 세 번의 시낭송회를 기억하는 분들입니다. 이 숙제들을 올해는 풀어볼 계획입니다. 청춘의 설렘과 아득한 그리움을 신고 달리는 문학기행, 모처럼 자신의 마음을 글로 풀어보는 주부백일장이라면 자칫 단조롭기 쉬운 우리 교민

들의 일상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는 선물이 되겠습니까.

1999년 이래 173회 탐방 넘겨 문화탐방·강좌·시낭송회 등 풍성한 2010년 계획

저 역시, 20대에 제 인생의 모토였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돛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 보려합니다. 저기 고래가 살고 있다는 바다를 향해 하며 파도를 치며 찬란한 감각의 고통을 다시 들어보려 합니다.

문화탐방은 작게는 개개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이 될 것이며, 크게는 세계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계시민의 근본이며 인류애의 바탕임을 알고 있기에 다문화시대를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저희 배에 초대합니다.

고래를 찾아 함께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카르타 수디르만 로타리 클럽



자카르타 수디르만 로타리 클럽 회장
이 지 현

또 한 해를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활기차지 못 하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의 비상을 준비할 수 있었기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저희 로타리 클럽 으로서는 창립 2주년을 넘기면서 회원들의 강화된 결속력을 발판 삼아, 좀 더 짜임새 있는 지역사회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불우 청소년을 위한 1:1 후원 프로그램, 자녀들과 더불어 몸으로 봉사하는 기쁨을 배우는 밥퍼 봉사과 UI 대학의 장학금 지원 및 자선음악회를 통한 해당 지진난민구호금 모으기 등을 전개 하면서 주변인들과 더불어 나눔의 행복을 맛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새해엔 새로운 회원들의 동참과 더불어 문맹과 빈곤 퇴치에 비중을 둔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타리의 주 사업인 소아마비 박멸에도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법정스님의 글 몇 줄로 새해인사를 대신 올립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주었음을 긍정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기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체인 나를 뛰어넘어 전체와 만난다.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나를 얽어 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측 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 진정한 자유인에 이르는 것,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하는 것,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적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두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가, 나는 이것들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넓은 생각, 넓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
지난해,
지역사회활동 역점
올해,
문맹,빈곤퇴치 활동

”



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왼쪽부터 최양기 한인뉴스 편집위원, 조규철 편집인, 권봉중씨, 김은미 편집위원, 예미해 씨, 이수진 씨 남편(대리참석), 김덕우 씨, 김재민 편집위원

한인뉴스 공모전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예미해 씨 우수작으로 당선

40년의 역사와 3만 5천명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사회 한인사회. 한인뉴스는 인도네시아 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당위성을 되짚어 보고 그들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이라는 테마의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7월부터 시작된 공모전에 많은 교민들이 글을 보내주셨고 지난 12월 15일 마감되었다. 글들은 공통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소재 면에서도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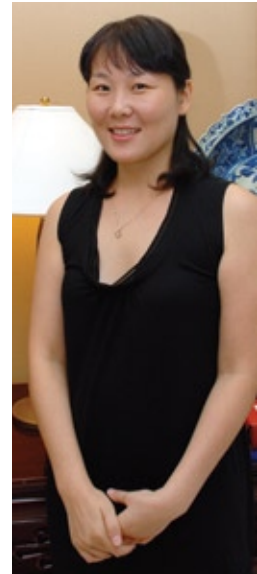
한인뉴스는 예미해 씨의 ‘까까 뿌지와 덕이 이지매’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수필처럼 써내려선 그녀의 글은 까까 뿌지와 덕이 이지매를 동일시 하며 누가 우리 덕이 이지매를 또한 누가 우리 까까들에게 오명을 씌워 줬을까 잔잔히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으며 모든 까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통해 우리 교민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시도한 점이 진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인뉴스는 1월호와 2월호 공모전 우수상과 가작을 연재한다.

수상자 및 수상 작품

우수상	예미해	까까 뿌지와 덕이 이지매
가작	권봉중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인의 새로운 이력서를
	김희범	상호간의 주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김덕우	Ugly Korean? No! We are dynamic Korean!!
	이영숙	작은 것부터 한국의, 한국인의 사랑을 심자
	이수진	정들어 사는 그곳이 고향

우수작 당선자 예미해 씨

상을 받을만한 글을 쓰질 못하였는데 상을 주신다니 망설여 지고 과분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연초 3월부터 5월까지만 혼신을 다해 쓰는 가계부를 제외하고, 10여 년 전에 “조선일보”에 손바닥만한 독자의견이 기재된 이후로 제 글쓰기 역사에 쾌거라 할 만한너 무나 과한 상이었습니다.



살면서 틈틈이 글 욕심에 몇 군데 도전해 보긴 했지만 매번 “낙”이었습니다. 감동 없이 화려한 언어 놀음에만 신경 쓴 게 시어빠진 어린 복숭아를 달다 우긴 꼴이었지요. 머리가 익고, 제 영혼이 곱살아 지니 제가 써 놓고 제가 눈물을 찍는 초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글감을 제게 줄지 흥분과 긴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민들이 한인사회에 관심과 영향력을 끼칠 것을 기대하며 이 수상에 관심과 긍정적인 신선을 보내 주신 ‘한인뉴스’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까까 뿌지와 덕이 아지매

예 미 혜

인니에서의 첫 발 떼기는, 낯선 이국 땅의 생경함 들과 처음 보는 열대과일을 베어 물었을 때의 야릇한 풍미가 뒤범벅된 긴장과 설렘이 있었다. 완전히 숙성되어 무른 바나나 맛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높은 당도가 거북스러운 똥 구린내 나는 두리안이 내 인도네시아 생활을 담은 맛이 아닐까 싶다.

굳이 욕심을 내어 따라오지 않아도 될 것을 ‘애 영어교육이 어찌니’ ‘남들은 일부러도 보내는 유학’이니 하며 무리를 해 남편 목을 죄며 따라붙은 타향살이었다. 딱 2년만을 약속하며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알팍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저울질 하는 것은 ‘까까의 나라’ 즉 식모를 쓰면서 늘어진 팔자 편한 노냐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내 상식 속에서 식모는 최소 40~50평은 되는 공간에서 상류층에만 쓰임직한 단어 이거늘..... 이 나라 에서는 방 두 칸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밥하는 식모, 애 보는 식모 들 이상을 쓰며 여유 자작하는 광경이 적잖게 꼴 사납고 가찮은 구석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끝까지 식모는 쓰지 않으리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땀 샤워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한 몸 놀리지 않으리라 이를 악 물었다. 한 평이나 될까 싶은 공간에서 더러는 빛들 틈도 없이 어둡고 침침한 골방에 하나씩, 둘씩 기거하며 노냐들의 수족 노릇을 하는 까까들을 보면 비타민제라도 사주 고픈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었다.

하지만 나의 어줍잖고 주제넘은 참견은 까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변의 따끔한 질타에 매번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되려 고용창출에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주장하며 까까 고용을 권하는 노냐들에게 슬슬 설득 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 5학년 정도의 신장에 마르고 까만 아이들, 뭔가 잔뜩 기죽은 듯 동그랗게 뜬 눈,썩은 치아에서 풍기는 현기증 나는 구취, 못 배우고 비위생적인 이 땅의 수많은 까까들! 노냐들의 물건에 손을 데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남편들을 유혹하고, 기사와 바람이 나고, 돈을 훔쳐가고..... 죄목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까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인니의 생활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

“

구취, 비위생적, 거짓말, 남편 유혹, 기사와 바람, 돈 훔쳐가고...

죄목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까까들...

”

나도 호젓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까까를 들이기로 결정했고 심혈을 기울여 그녀를 위한 이간들을 착착 준비 해주었다.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며 본전 뽑는다는 생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노냐로 거듭나려 독을 품고 있었다.

드디어 감풍 시골 때기 뿌지가 우리 집에 왔고 온 가계를 책임 져야 하는 그 아이의 얼굴은 어둡고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작고 깡마른 체구에 행여 몸쓸 병이나 옮기지 않을까 걱정을 덤으로 주는 지경이었다. 걸신 들린 듯 흰밥을 먹어대더니 달수를 더해가자 살이 차오른 보름달같이 흰해졌다. 더러는 내 화장품을 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밤샘 전화질을 하지 않나. 월급 올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 애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쾌찜한 생각이 들어 당장이라도 쫓고 싶었지만 말끔하게 다려진 옷가지들을 보며 마음을 돌리곤 했었다.

까까 뿌지는 까까로는 드물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였다. 알 수 없는 억양을 쓰긴 했지만 인니어에 무지한 나로써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너는 어디서 영어를 배웠니?”

우수상 수상작

하고 물으면, 썩은 대문니를 보일 듯 웃으며“여기 오기 전 미국사람 집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3년이란 시간이 저 정도의 능숙함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아이가 남편 책꽂이의 영어 문법책을 몰래 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필요하면 빌려가도 좋다고 말했다. 자기 방에는 30년도 더 되어 보이는 인니어 영어책이 있었고 얼마나 봤던지 새까맣다 못해 꿈꿈한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지경이었다.

영어로 뭔가 지시할 때 마다 집중하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까까 뿌지였다. 몇 만 불의 수업료를 내고 보내는 딸아이 국제학교도 1년치 2000불을 일시불로 내고는 일주일에 한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내 영어학원도 그녀의 열성 앞에선 별 볼일 없는 허영 덩어리, 효과 없는 욕심영 어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밤잠을 줄이며 틈틈이 영어 단어며 문법이며 열심을 내며 들여다 보던 뿌지가 기특했다. 너는 왜 그리 영어에 열심이니?” 하고 물으면 “영어 잘해서 외국인 집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요.”하며 배시시 웃던 아이……

나는 30년 전 지금 뿌지와 똑같이 배시시 웃으며 내게 눈깔사탕을 주며 “이제 우리 못 본다. 따라오면 안돼”하던 덕이 아지매가 뿌지 얼굴에 캡쳐되었다.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5촌, 6촌, 아무튼 내겐 성도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그저 ‘덕이 아지매’로 불리던 열 일곱, 열 여덟 되던 친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엄마,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고, 혼자 지내기 딱하게 되어 어디론가 식모살이를 간다고 콩 타작을 하며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나와 덕이 아지매는 널어놓은 콩 위

로 강충이를 하거나, 콩깍지를 한데 모으거나, 까놓은 콩을 손으로 쥐었다 폼다하며 물정 모르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해 콩 타작이 끝날 무렵, 덕이 아지매는 간단한 보통이를 옹구리에 끼고 웬 아저씨와 함께 떠났다. 그녀가 가던 날, 온 동네사람들이 다들 당산나무 밑에서 그녀를 배웅했고, 엄마도 내 손을 꼭 잡고 하릴없이 눈물을 찍으셨다. ‘덕이 배나 안 굶고, 손이나 안 타야 되는데…’ 엄마가 나직이 말씀하셨고 뜻을 알리 없는 나는 ‘손 타면 아프고, 뜨거워?’ 하며 엉뚱한 말들을 했었다. 그 후로 한 두 해쯤 지나 덕이 아지매가 미쳐 날뛰며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었고 ‘잘 못했습니다. 추워요, 배고파요’ 만 읊조리며 미친년 발광을 하고 있으니 데려가라는 얘기가 들렸다.

아버지께서 어느 기관으로 그녀를 보내셨고 그 후론 그녀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맑고 청초한



꽃 난 같던 덕이 아지매가 정신 줄을 놓고, 삶이 망가지기 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연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30여 년이 흘렀다. 꽃 같던 그녀도 틀림 맘속 꿈이 있었을 게야. 지금의 까까 뿌지처럼 말이야. 나는 순간 더 이상



‘덕이 배나 안 굶고, 손이나 안 타야 되는데...’

뜻을 알리 없는 나는

‘손 타면 아프고, 뜨거워?’ 하며...



이 아이가 남 같지 않았다. 내 것을 좀 나누어 쓰면 어떠랴? 이 곳에서 그녀가 행복하기를 조심스레 빌었다.

그런 아이가 지난 르바란에 시골집에 가서 약속한 날짜 가 되도록 돌아오질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며, 그간에 잘 해준 것에 대한 후회, 더 혹독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원망과 한탄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약속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저녁 무렵 뿌지가 나타났다. 친정나들이 가 얼마나 좋았던지 새로 산 귀걸이가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다. 나는 쌍심지를 키고 결판을 낼 생각으로 애를 앓혔는데 스물스물 울기 시작 하는 게 아닌가? 아예 대성통곡을 하며 끼이 끼이 울어댔다

‘뭘야 애 지금 페인트 쓰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여 내가 시집을 가야하고, 아버지께서 벌써 쌀과 돈을 미리 받으시어 원치 않는 곳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니, 신랑이 괜찮으면 잘됐지 뭐’ 라고 썩 하게 짜 붙였더니.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애도 여럿 있으며 나이 차이가 20년도 더 난다고 했다. 빈혈이 있어 유독 허연 얼굴이 나이차이 20년이란 숫자와 뒤섞여 곱이 멍했다. 그냥 떠나려다 얘기도 하고 빌린 영어책도 돌려줘야겠기에 다시 돌아왔고 죄송하지만 내일 일찍 가야 한다’ 고 했다

나는 울적하고 미안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그녀를 파악 끌어안았다. ‘뿌지야 어찌니’ 그 날의 안타까움은 비단 까까 뿌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을 게다. 비록 그 얘기가 더 나은 집으로 옮기고픈 욕심에 꾸며낸 허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녀에게 매몰차게 하지 못한 것은 내게도 꽃 난 같았던 식모살이 간 ‘덕이 아지매’가 있었기 때문일 게다.

식모살이의 설움 때문이었을까 귀에 꽃을 한 가득 꽂고 산천을 미처 돌아다니던 덕이 아지매의 안타까움이 양껏 볼 가득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는 끼이 끼이 울어대는 까까 뿌지의 안타까움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우리의 지난날 속에 얼마나 많은 덕이 아지매가 있었으며 얼마나 지독한 설움 속의 까까 뿌지들이 있었겠는가? 우리의 고모요, 이모요, 당숙모요, 친척이요, 이웃이었던 그녀들의 슬픈 현실들...

‘덕이 아지매도 꿈이 있었을거야’ 조용히 혼잣말을 해본다. 이 땅의 수 많은 노냐들, 적어도 한국 노냐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이 길 바래본다. 까까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어 주길 기대해 본다. ‘정 쥐도 몰라 나중엔 배신해’ 옳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뜻해 지자. 일방적으로? 그래 일방적으로 관대해 지자. 적어도 나는 그리 하고 싶다.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시당했던 덕이 아지매를 누군가 따뜻이 보듬었다라면 그녀의 삶이 달라졌을 거란 기대와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날 돌아가는 까까 뿌지에게 냉장고를 선물했다. 남편은 가르푸보다 마크로가 짤 거라며 밤새 가격을 곱씹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이루지 못한 꿈을 언젠가 이루길 빌었으며 그 옛날 덕이 아지매 뭉까지 잘 살아주길 빌었다.

유독 하얗고, 썩은 대문니에, 뒤를 늘이는 인니식 영어를 쓰던 까까 뿌지! 그녀는 그렇게 갔고, 그녀가 주고 간 남편의 영어책 속엔 ‘Thank You NN, Don't forget you love’ 라는 짧은 글만이 남았다.

나는 또 다시 새로운 까까를 기다린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인의 새로운 이력서를...

권봉중

지난 8월 중순 어느 날 점심 시간 우연히 펼친 한인 뉴스를 읽으면서, 추한 한국인상을 개선하기 위한 교민들의 원고를 공모한다는 광고를 대하면서,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느껴왔으며, 스스로 실천해 왔던 작은 노력을, 인도네시아를 제 2의 고향으로 살아 가려는 교민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책임감으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생활이 1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중간 고참입니다. 왜 한인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글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민들 중에서도 뜻있는 분들께서는 스스로,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우선, 저부터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며, 지나온 인도네시아의 생활 중에서 저 스스로도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추한 행동은 없었는지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딛는 많은 교민 분들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시작하셨는지... 걱정 반 근심 반으로, "Apa Kabar!"를 수없이 사용하시면서, 나름 대로의 적응을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운명으로 돌리기에 모든 것들이 생소했던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네시아를 독학하면서 적응하고자 노력을 했지요. 이곳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인도네시아인이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인정을 받는 한국인으로 생활을 하고, 나로 인해 미래의 주인이 될 교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을 가끔씩 잊어 버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후회를 해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평가한다"

는 일상의 진리를 간과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우선 현지화가 되고, 그들의 인성을 알고 난 후에,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한국인화를 시켜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신 교민 분들께 현지인 운전수, 가정부, 회사 직원들이 미련해서 많이 불편들 하시다고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과연, 얼마나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들은 또한 우리를 얼마나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웃는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현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으로 전가하고 계시는 건 아닐런지요. 지금까지, 본인들의 언어 부족을 돌아보기 전에, 현지인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오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속적인 언어 공부, 추한 이미지를 탈피하는 최우선 순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2년 가까이 중국계 공장에서, 영업 이사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할 때까지, 한국말은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는 혹독한 근무를 경험을 했지요. 저로서는, 인도네시아어 구사가 어느 정도 불편 없이 가능했던 시기이지만, 너무도 힘든 생활이었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필요한 소중한 많은 것을 배웠음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요. 모든 시작이 현지인과의 대화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언어 사용이 중요한 것을, 피부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민 분들이, 현지인에 대한 모든 호칭을, IBUNA BABPK으로 하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은 갖고 계신가요? KAMU 보다는 ANDA는 호칭을 자주 사용을 하시는지요. JANGAN 보다는 TOLONG으로 사용을 하시는지요. 한국인하면 떠오르는, 무의식적인 CEPAT CEPAT 보다는, KALAU BISA TOLONG CEPAT AJA 라고 해 보셨는지요. SAYA MAU 보다는, BOLEHSAYA로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 보시면, 우리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상이 달라지고, ORANG BAIK 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 대부분이 현지인을 통제하는 위치에서 생활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난 후에, 그들로부터 기대를 하는 게 수순이 아닐런지요. 모든 것들이 상반된 양면성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서운한 만큼 현지인들도 서운하다면, 결론은 외국인인 우리가 안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 현지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현지인을 한국인화 시킨 후에, 그때부터 정상적인 책임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현지인들의 능력을,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또한 그들 눈높이에 맞춘 다음에, 서로의 노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 하려는 동반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민분들의 생활의 일부분이며,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이 출입을 해야만 하는 골프장이나 가라오케에서, 한국인의 위신과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 가장 쉽게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술 한잔을 하면서, 라운딩을 하면서, 과연 내가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도우미들의 작은 자존심 까지를 아프게 한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임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능력이 되시는 한 분 만이라도, TERIMAKASIH 라는 말로, 그 자리를 마감해 주시면, 설령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은 현지인들에게도 우리의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스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 술을 못 마시는 저는 다른 분 보다 덜 취할 수 있는 자존심(?)이 있으므로 도우미들에게 자존심까지 버리지는 말라고 꼭 한마디를 해주고 나오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자녀와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한국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운전수와 가정부에게 도움을 받는 관계이지 결코 종적인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깨우쳐 주고 가끔은 현지인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혼낼 수 있는 올바른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가는 교민들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의 위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은 새로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 가자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그러면 방법은, 한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부딪치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의 새로운 이력서” 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력서를 준비할 때, 가장 잘나온 사진을 붙이고, 면접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교민 전체가 책임감으로 서로 먼저 실천을 한다면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생활 터전을 지키고,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인의 새로운 이력서 제출 운동” 에 동참해 보도록 하시지요.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여러 선/후배님들께, 주제 넘은 얘기가 많이 표현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만을 받아 들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이력서를 준비할 때의 마음으로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의 새로운 이력서” 를 제출해야...”

“

Ugly Korean? No! We are dynamic Korean!!

김덕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반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다. “다음주에 Rain이 와서 콘서트 하는 게 정말이야?” 우리나라 가수의 콘서트에 관심을 가진 사실에 기분이 좋아진 나는 맞다고 대답해주었고 친구들의 대화주제는 갑작스럽게 한국 가수들로 바뀌었다. 어떤 친구는 소녀시대가 좋다, 어떤 친구는 ‘2pm’의 니쿰이 태국사람이라며 얘기하던 무렵, 한 친구가 나한테 말했다. “아무리 한국 가수들이 좋아도 난 한국인들이 싫어! 내가 옛날에 살던 미국 동네에서도 한국인들이 막 길 더럽히고 그랬다고!” “그게 정말이야?”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략 5000만 명. 그중에서 해외동포가 700만 일 정도로 어느새 한국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세계에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삼성과 LG 등 많은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광들 뒤에는 우리 교민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길바닥에 붙어있는 껌들부터 인도네시아에 술을 밀반입하려는 것까지. 우리들은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직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우리들이 보여주는 비매너적인 행동들, 이기적이고 타국에서도 우리들끼리만 모이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 몫 하는 모양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의 길바닥에서 굳어서 붙어있는 껌을 찾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바닥의 껌들을 찾기는 힘들며 가끔 찾을 수 있는 바닥의 껌들은 거의 다 한국인들이 길바닥에다 만들어놓은 자랑스런 훈장이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미국인들의 머리 속에는 한국인들이 이미 몰지각하고 매너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각인되어있는 듯하다. 이미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어글리 코리아’이라는 오명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좁게는 우리 학교에도 어글리 코리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캠퍼스와 중고등학교 캠퍼스가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중고등학교 캠퍼스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한국아이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었다. 한국에서의 집단 따돌림 문제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물며 이 먼 인도네시아에서까지도 그런다니. 그것도 국제학교에서 다른 많은 외국아이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이제 곧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있는 중고등학교 캠퍼스로 올 텐데 나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 그것을 그저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봐도 무방한 것일까? 그렇게 아이들을 따돌리고 끼리끼리 엮어서 노는 모습을 보고 외국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어글리 코리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과격, 명석, 근면, 성급 맹렬, 화끈, 특이, 지독.

이 단어들 어떤 것을 형용하는 단어들일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들이다. 좋은 의미의 단어들도 있고 나쁜 의미의 단어들도 있는데 난 저 단어들 포괄적으로 가진 단어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일단 무언가를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완성해내고 성공하고 끝을 보는 성격이다. 단점도 있다. 무서운 집념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생략하거나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식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글리 코리안 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인들은 점점 세계로 퍼져나갔고 외국에서의 일도 우리 특유의 징검다리 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터졌고 우리 한국인들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세계 곳곳에 퍼진 한국인들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잘 살아나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 시간인 것 같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고생한 것을 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시행착오들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 보다는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을 다잡고 고치고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글리 코리안의 오명을 쓰게 한 우리들의 허물들을 이젠 거두어 들이는 것이 좋을듯하다.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국 된 이후로 국제적 이미지 좋아져'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본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은 거의 제목과 비슷했지만 난 저 제목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다. '과연 우리 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의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일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해줄까?' 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보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석유수출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호령하는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리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는 그들을 선진국으로 쳐주지 않고 있다. 자격조건은 충분해 보이는데 왜일까? 그 이유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 인들의 매너가 선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축구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기장에 물병이 날아들고 선수들에게 레이저를 쏘며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한 그들의 매너를 다른 나라사람들이 곱게 봐줄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굴레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솔직하게 대답하자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난 생각한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푸대접을 하고 세계에선 어느 샌가 인종차별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모자라다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있다. 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간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새 한국인을 싫어하는 모임의 리더가 되어있고 우리에게 아무 원수 진 것 없는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서 좀 더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할듯하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를 못나게 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에서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 끝까지 고립되어서 어글리 코리안으로 남겠는가 아니면 이제 색안경을 벗고 편견 없이 세상을 봐서 정이 넘치는 코리안이 되겠는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란 없는 걸까?

그건 아닌 거 같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바꿀 수는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앞으로 언제 땅이 쪼개지고 바다가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첫 번째. 단일민족이란 생각을 버리자.

내가 첫 번째로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 부분은 UN에서도 우리나라에게 경고한 바이다. 지금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다. 온 세계의 나라들이 하나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깨끗한 순수혈통을 중시하고 있다. 헤리포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인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헤리포터 시리즈 속의 죽음을 먹는 자들과 비슷할 수도 있다. 마법사세계의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머글들과 다른 족속을 죽이는 죽음을 먹는 자들과 아직까지도 순수혈통 운운하면서 자랑스런 한민족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 참 많이 닮은 거 같다. 아직도 혼혈아들을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꺼리는 우리의 모습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혼혈이라고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솔직히 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었다. 한국에서 나고 15년 동안 자란 나에게서 이미

가작 수상작

혼혈을 꺼리는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사고가 박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좀 낡아진 거 같지만 아직도 나에게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확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들.. 우리가 단일민족이란 생각은 이제 버리고 세계와 화합하는 한국인이 되자!

두 번째.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으로써 좀 더 겸손해지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면서 상당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느 샌가 우리 나라는 자만하기 시작했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잊고 오히려 옥수수는 익어도 뽕뽕하더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랑할 만큼 잘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콧대만 높아진 우리들은 스스로를 너무 높게 여기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린 그런 이들을 보고 '참 꼴불견이다' 하는데 다른 나라사람들도 우릴 그렇게 보질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누가 되었든지 그 꼴불견에게 언젠가는 태클을 건다. 지금도 가끔씩 걸려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나라들이 거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대상이다. 우리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태클이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질 것이다. 우리 조금만 코를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자. 분명히 살가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넘어져있는 친구들도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발목에 상처를 입힌 자들이지만 어느 순간엔 어딘가에서 태클이 들어올 때 막아줄 친구가 되어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국 밖에서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자

우리가 한국 안에서는 왕이지만 한국 밖에서는 그저 평범한 외국인에 불과하다.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길거리에 껌을 아무렇게나 뱉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곱게 볼까? 우리도 한국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이니 최대한 우리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자.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고정되어가는 이미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뜬금없는 야구 이야기이지만 야구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보직이 무엇일까? 한 경기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선발투수? 한 팀을 이끌고 격려해야 하는 주장? 내야에 쭈그리고 앉아서 경기를 지휘하는 포수? 위기상황에 등판하여 팀을 구해야 하는 중간계투? 모두 아니다. 야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보직은 바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마무리 투수다. 그 이유는 참으로 재미있다. 대부분의 마무리 투수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마무리투수들은 100번의 세이브를 성공 시켜도 1번의 블론세이브로 욕을 먹는다. 단 한번의 실수로 100번의 세이브가 날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다.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려면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충분하다. 명심하자. 단 한번의 실수로 다시 한번 우리를 어글리 코리아인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사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이 많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인들을 어글리 코리아인으로 만들면서까지 글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우리들의 외국에서의 못난 행동들, 실수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내 생각은 점점 바뀌었다. 어쩌면 나 역시도 이기적이고 자존심만 센 한국인들로 외국인들 눈에 비춰졌을지도 모른다. 남들과 타협하는걸 싫어하고 웬지 모를 인종차별주의에 빠져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 눈에는 위태로운 성공을 이뤄낸 우리가, 위태로운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콧대만 높아진 우리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게 과연 비단 몇 사람들만이 짙어지면 될 가벼운 문제일까? 어글리 코리아인의 짐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졌으며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결국에는 물려받을 빛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어글리 코리아인이라는 이 두꺼운 편견의 허물에서 벗어나자. 비록 허물을 벗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허물에서 벗어난다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인들의 어글리 코리아인 에서 다이내믹 코리아인으로의 변천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공적자금

글 : 김 문 환

센투리은행(Bank Century) 공적자금 투입 문제로 국내 정국은 요동치며 SBY 제2기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권(Hak Angket)을 관철시켜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목적은 6조7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합당하게 투입되었는가 그 본질일 수 있을 터인데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추이를 지켜보면 그 자금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총선, 대선 자금과 SBY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그룹의 통칭인 '씨케이아스(Cikeas)'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아 놓고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센투리은행 스캔들'은 처음부터 정치성을 띠고 각 정파간, 권력자들간의 전리품 획득 경쟁으로 변모되어 그 열기는 가일층 뜨거워지고 있다. 어쨌든 공적자금이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시중은행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려 선의의 은행을 회생시키기만 한다면 이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공적자금이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당연히 폐쇄되어야 할 은행이 권력자와의 밀착되어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구제자금을 수혜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땅히 구제되어야 은행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선의의 예금자에 대한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몰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비교는 1992년 말 당시 살림그룹(Salim Group)에 이어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였던 아스트라(PT.Astra International) 그룹이 하루 아침에 붕괴된 전례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며 도태되어야 할 수많은 은행 중에 유독 대통령 친인척들이 관련된 은행들만이 구제금융의 특혜를 받아 명맥을 이어온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스트라 그룹은 도요타 자동차의 현지법인으로 최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가장 안정된 기업이었다.

1980년대 고도성장 기조에 따라 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하자 1988년 수마르린(Sumarlin)재무부장관은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Pakto 88'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는다. 이 조치로 인해 금융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졌으며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대기업들은 예외 없이 금융 자회사를 설립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시켜 그룹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나갔다. 아스트라 그룹의 사주인 윌리엄 수르야자야(William Soeryadijaya)의 장남 에드워드(Edward Soeryadijaya)는 1980년대 초부터 숨마 은행(Bank Summa)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며 부친의 기업군인 아스트라 그룹과는 간접적으로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숨마은행을 자금줄로 삼아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지에 호텔, 부동산 사업에 독자적으로 투자하여 몸체를 불려 나갔다. 이 즈음 금융산업 자유화 이후 금융회사가 무려 240개에 달할 정도로 금융산업은 과열현상을 보이게 되자 은행부실 문제가 필연적인 결과로 예견되었다. 1990년에 들어 금융감독 당국은 갑자기 자금공급에 대해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자 지나치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져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속출하게 되며 숨마은행 그룹도 예외 없이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에드워드는 1992년 부친인 윌리엄 수르야자야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 모두를 이양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된다. 숨마그룹 주식 100%를 인수한 윌리엄은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40여 년 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스트라 그룹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로 1조4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부채상환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평소 동네 주민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며 이웃 아저씨를 호칭하는 '오움 윌렘(Oom Willem)'이라 불리며 여타 재벌 총수들과는 달리 존경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던 윌리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쾌척하여 동업자들의 협조를 받아가며 실마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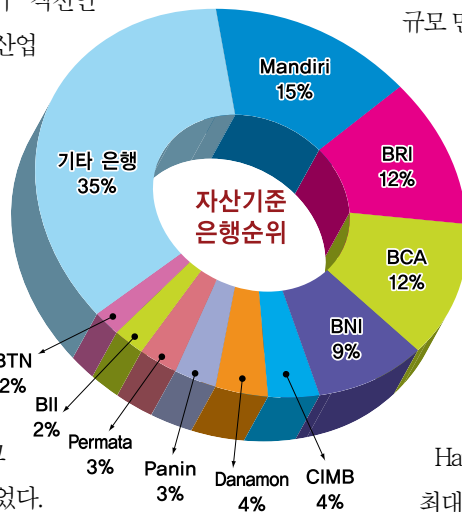
풀어나가는 듯 보였으나 무대의 뒤안길에선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즉 정부 권력자와 결탁한 일단의 세력들이 아스트라 그룹을 이번 기회에 접수하도록 이미 시나리오를 짜 놓았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소문대로 1992년 12월 14일 자로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숨마은행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며 아스트라그룹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 당시 아놀드 파머와 잭 니콜라우스에게 설계비만 각각 3백만 불씩을 지불하며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골프장을 지향하며 한국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상류층으로부터 회원권을 판매하였던 에메랄다 골프장도 이 때 주인이 바뀌게 된다.

태국을 시발점으로 발발한 외환위기의 쓰나미가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까지 덮치기 직전인

1997년 2월, 1989년 금융산업 자유화 조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은행이 240개에 달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1992년의 숨마은행 폐쇄 논리라면 지금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중앙은행의 구제금융(BLBI)을 수혈 받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장녀인 뚜뚏(Tutut)이 대주주로 이는 야마 은행(Bank Yama)은 뚜뚏의 자회사인 교육방송사(TPI)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고속도로 운영회사에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부실화되어 있는 은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1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민간은행인 BCA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BCA로 하여금 야마 은행의 주식 25%를 인수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40년대 후반 독립전쟁 시절부터 대통령의 전우로서 빠르따미나사를 창설한 입누 수또워(Ibnu Sutowo)의 딸인 엔당 우따리(Endang Utari Mokodompit)가 대주주로 있는 파시픽은행(Bank Pacific)은 2조루뵀아가까운 부실채권으로 회생불가로 판정되었지만 국책은행인 BNI은행으로 하여금 지분 50%를 인수도록 하여 은행 폐쇄를 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불량은행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160억불에 달하는

구제금융(BLBI)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IMF관리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부실 정도가 가장 심각한 16개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제1차로 폐쇄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16개 은행 중엔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밤방(Bambang)과 그의 사업 파트너인 프라요고(Prayogo), 헨리 뿌리바디(Henri Pribadi)가 대주주인 안드로메다 은행(Bank Andromeda), 대통령의 사돈가족인 하심 조요하디꾸스모(Hasjim Djojohadikusumo), 뿌라보워 형제가 소유주인 인두스트리 은행(Bank Industri), 입누 수또워(Ibnu Sutowo)의 가족이 대주주인 파시픽 은행(Bank Pacific),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또미와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제휴하여 국민차(Mobil Nasional)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술라웨시 마나도 출신의 에만(Eman)가족이 소유한 피나에산 은행(Bank Pinaesaan), 그리고 당시 은행 규모 면에서 서열 11위였던 하라뻘 센토사 은행(Bank



자산기준 은행순위. 만디리은행이 15%를 차지하며 최대은행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국정조사위가 발동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센뚜리은행의 당시 점유율은 1%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의 금융기관이었다.

Harapan Sentosa)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최대 민영은행인 BCA 은행(Bank Central Asia)은 제외되었다. 이 은행은 인도네시아 최대 재벌인 립수룡이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장녀인 뚜뚏과 장남인 시깃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16개 민간은행에 대한 폐쇄조치가 떨어진 보름 후인 1997년 11월 19일, 하라뻘 센토사 은행(Bank Harapan Sentosa)과 구나 은행(Bank Guna International)을 동시에 폐쇄당한 사주 헨드라 라하르자(Hendra Rahardja)는 은행 자금을 빼돌린 후 해외로 야반도주하였다. 술라웨시 출신의 헨드라는 오토바이 판매상으로 사업에 입문하였으나 출중한 외모와 신사도 정신의 제스처를 무기로 삼아 그의 동생 에디 탄실(Eddy Tanzil)과 함께 권력층과의 인맥을 돈독히 쌓아 단기간 내에 대기업군을 구축하게 된다. 실제로 영부인의 동생인 입누 하리안또(Ibnu Harjanto)를 하라뻘 센토사 은행의 중역으로 영입하였으며 당시의 실권자인 치안질서회복사령관

(Kopkamtib)인 수도모 제독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에디 탄실은 한국사업가들과도 사업관계를 맺어 1980년대 중반 빈따라(Bintara) 오토바이 회사와 벡스 비어(Becks Beer)라는 자신의 기업군에 다수의 한국인 중간관리자들을 지역 매니저로 채용하여 이들 중 일부는 향후 교포사업가로



12월 22일 부디오노 부통령이 국회 '센뚜리은행 국정조사 위'에 참석하여 증언하고 있다. 본 국정조사위원회는 권력그룹간의 실질적인 거래결과에 따라 그 외관적인 모습이 그려질 것이며 향후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성장하게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최고 권력자와 가장 유착되어 최대재벌 자리를 견고히 지키던 있던 살림그룹 앞에 도전장을 던진다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탄압받던 불문을대로 헨드라와 에디 탄실 형제는 림수룡의 공격을 받게 된다. 마침 에디 탄실은 1995년 사업확장을 위해 바벤도은행(Bapindo)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3천억 루피아가 부정 대출로 둔갑되어 그 혐의로 인해 1996년 자카르타 시내 찌빠냥 형무소에 수감되고 만다. 그러나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난 1996년 5월 4일 그는 형무소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만다. 이후 그의 행방을 놓고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중국본토로 들어갔다는 설과, 또는 그와 결탁한 권력자층에서 그의 발설이 두려워 그를 은밀하게 처단하였다는 설까지 난무하였지만 십 여 년이 지난 시점에 중국에서 성형한 모습의 그를 보았다는 증언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에디 탄실의 형 헨드라 라하르자는 해외도주 이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다 호주에 정착하였으나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되어 2002년 10월 호주 법무부의 강제송환 명령이 떨어진 직후인 2003년 1월 호주에서 갑자기 사망하고 만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센뚜리 은행(Bank Century)은 2004년 4월 자생력이 없던 삐꼬은행(Bank Pikko), 씨아이씨 은행(Bank CIC), 단팍은행(Bank Danpac) 등 3개 은행을 중앙은행의 권유로 합병된 은행이다. 실제로 상기 은행합병에 관한 논의는 이보다 2년 반 전인 2001년 11월 중앙은행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자본금 부족, 부실경영, 잦은 규정위반 사례가 지적되어 보류되어 왔으나 당시 은행감독국장이던 시띠 화즈리아(Siti Fadrijah)의 선도적인 역할에 힘입어 중앙은행의 인가를 관철시키게 된다. 현재 이 은행의 최대주주인 라हत(Rafat Ali Rizvi)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로벳탄플라르(Robert Tantular)의 요청에 따라 은행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1월에 미화5백5십만 불을 예치하였으며 10월에는 1천5십만 불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예치한 4천만 불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불을 수혈하였다고 강변하며 자신도 로벳의 사기행각에 말려든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로벳은 진정 자신을 사기친 사람은 라ह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하르또 정권 시절부터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되어 수많은 기업군의 운명을 갈라놓은 공적자금의 칼날은 '센뚜리은행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제 막 출범한 SBY의 집권2기 정권의 발목을 잡으며 쓰나미성 파고를 몰고 올 기세이다. 설상가상으로 수하르또 정권 말기부터 권력층의 정경유착을 파헤쳐 온 저널리스트이며 시민운동가인 조지 유누스 아디존드로(George Junus Aditjondro)의 저서 '찌깨아스의 문어발 유착을 파헤친다(Membongkar Gurita Cikeas)'가 12월 하순부터 유포되자마자 서점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기현상을 보이며 장안에 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디존드로는 찬반 논쟁과 무언의 압력을 제치고 드디어 12월 30일 정식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날 자신이 존경하는 구스 두르 전 대통령에게 이 책을 헌정할 계획이었으나 구스 두르는 이날 임종하고 말았다. 2009년도 총선, 대선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자금 파이프 역할을 수행한 4개 자선단체를 거명하며 SBY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번 센뚜리은행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폭로물인 이 저서가 시한폭탄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에 어떠한 타격을 주며 이 드라마가 종영될 지에 대해 우리 한인 사업가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운 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유 촌 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드디어 서울이다. 1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보너스로 눈도 펑펑 내려줬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잠실역의 전망 좋은 스타벅스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전히 짙은 커피향으로 반겨주었고, 맛도 여전했다. 잠실벌을 휘감는 바람도 여전했다. 어제 두고 떠났다가 다음날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그리운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마술처럼 들려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난데없이 아침부터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놀라거나 혹은 반가워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벌써 돌아왔냐고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공항리무진 버스를 타고 잠실을 향하는 동안 나는 내 행복했다. 한강변을 나는 철새들에게도 말을 걸고 싶을 정도였다. ‘니들도 잘 있었니?’ 하고 말이다.

시간으로 치자면 반나절 동안의 공간 이동이었을 뿐인데 상하의 나라에서 눈 내린 순백의 계절로 바뀌었으니 사람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을 만났다. 나보다 네 살이 적은 동생은 언니를 절대적(?)으로 모시는 탓에 일차로 전화통화를 하고 늘 가던 잠실 스타벅스에서 브런치를 먹기로 했다.

우린 만나자마자 목은 대화를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과 공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와 옆에 있다는 것만 중요할 뿐이었다.

친정엄마와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귀여워하는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마치 겨울방학에 이불을 깔아 놓은 아랫목에 발을 넣고 앉아서 재잘거리고 웃던 그때, <두리틀 선생의 항해기>, <비밀의 정원>을 읽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이 행복했다. 그 와중에도 동생의 핸드폰으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그야말로 행복한 벨소리였다.

그 순간 커피의 맛과 향이 특별했던 건 아마도 그리워했던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사랑했는지는 겨울에 비친 내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온통 환한 미소 그 자체였다.

자카르타에서도 커피빈이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더 특별한 것은 공유한 기억이 새

록새록 돋고, 함께 나눌 시간을 생각하면 두근두근 거려서 일게다.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이 일사천리로 실행되진 못했다. 빼곡히 수첩에 적어놓은 계획들은 이러 저런 이유들로 인해 뒤로 밀리거나 혹은 취소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다치면 생각했던 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반 정도만 이루어 졌어도 좋은 것이다. 대신 꿈의 크기는 애초부터 클 필요가 있다. 딸에게도 늘 말했다 네가 가진 용량보다 더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러다보면 원래의 기대치에 근접해 있음을 언젠가 느낄 거라고.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것이 내가 딸에게 주는 유일한 충고이자 삶을 운용하는 방법이다. 모두 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라 나는 당당하게 딸에게 그렇게 말한다.

계획은 조금 어긋났으나, 반갑게 눈은 선물처럼 또 내려왔다. 인도네시아의 짙짙한 단무지가 아닌 달고 새콤한 단무지와 함께 자장면을 먹고 있는데 눈발이 흘날랐다. 거의 무아지경이 돼서 감탄하는 내게 딸이 한마디 했다.

‘결국 녹을 눈인데 뭐가 좋아?’

한창 감수성이 작렬할 십대의 딸이 사십대인 나의 감수성만 못하단 말인가?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자카르타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런 경이로운 자연의 현상에 심드렁해졌나 싶어서 한동안 눈을 껌뻍이며 바라봐야만 했다.

십대에 눈을 바라보는 태도가 낭만제로이면 사십대는 도대체 무슨 낭만부스러기가 남아 있겠느냐 말이다. 그

런 나의 쓸데없는 걱정엔 영원한 멘토이신 우 선생님이 한마디 날리셨다. 나이 마흔이 훌쩍 넘어서 강아지처럼 눈 오는 밤에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다가 목감기 걸린 에미 보다는 딸이 더 정상이라고.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리는 눈앞에서 무감동인 딸이 불만이다.

요즘은 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며 빠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나의 일이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별도의 전화가 없어도 지인들과 즉석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반색을 하며 다가오면 인사를 나누고 차 한 잔을 권한 후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시간을 추억한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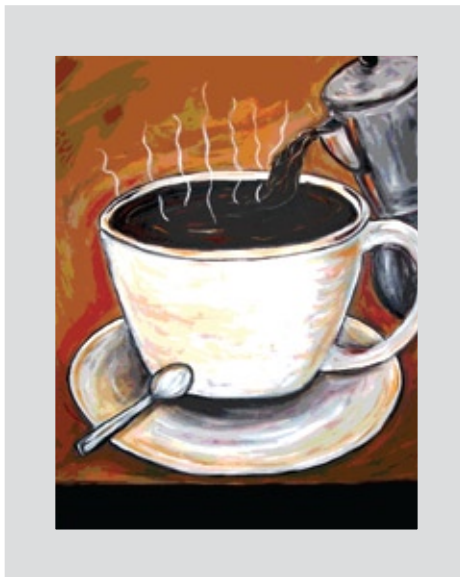
준용이 엄마, 유진이 엄마, 영민이 엄마, 그리고 내 절친 변여사..... 똑 같이 사춘기의 아들과 딸을 둔 우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맞다. 지금 나는 1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부재중이었던 일 년 동안의 잠실, 장미아파트 주변의 일상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듣고 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만들어

어 가는 연속극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들 눈 속에 가득한 웃음을 본다. 그 웃음 효과 때문에 아마도 한해를 거뜬히 통과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또 한해의 시작이다. 한번쯤 그리운 사람들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이라도 날려서 그리움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젝 · 트

글:이전순

행복한 아이의 비밀 2

201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고 기대됩니다. 비록 지난해가 마음에 차지 않았더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움에로의 도전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부모 자신들이 왜 아이들을 주눅 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지요.

흔히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부모 자신이 화가 나 있을 때 - 사실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부모들이 좀 화가 나 있기는 하죠! - 아무 말이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할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마냥 깎아 내립니다. '이리 내! 저만 아는 못된 녀석 같으니라구!' 혹은 좋지 않은 별명을 불러대거나 해서 친근한 척하면서 비하할 때도 있지요. '야 돼지야 저녁 먹어라!' 그중에서도 부모들이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 네 아버지만큼 형편없구나, 왜 착하고 귀여운 네 동생처럼 굴지 못하는 거야?' '네 친구 00는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은데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험한 말을 삼가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합니다. '가만히 좀 못 있겠니, 정말. 너 또 개 때리기만 해봐, 내가 너 죽여 놀 줄 알아' 그리고 아이가 듣는 데서 절대로 그 아이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앤 부끄러움을 너무 타서,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예요' 자녀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지는 마십시오. '너 정말 날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난 너 땀에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을 것 같다. 네가 엄마한테 뭘 잘했다고 그래?' 나중에 말썽이 생길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개를 확실히 손봐 놓았죠. 진짜 남자답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다른 아이를 손 봐 주는

것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여기게 되지요.

훈계할 때는 우선 부모 스스로 감정을 잠시 (정말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지속되는 20초를 잘 다스려서 아이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 20초를 아낄 부모는 없겠지요?) 다스린 후에 아이가 정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비하하거나 비교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험한 말을 하거나 왜곡된 부모의 감정이입을 삼가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입력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때로는 아이들을 붙잡고 똑바로 눈을 맞추며 직접적이고 확실한 긍정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의도하지 않은 듯이 가볍게 던지는 것입니다. '넌 기운이 철철 넘쳐서 아주 날아다니는구나. 내가 따라 가기 벅찰 정도야.' '어쩌면 꼬마 애들을 그렇게 잘 돌보니, 아이들이 너를 너무 좋아 해.' '옆집 할머니가 아까 그러시더라, 네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예뻐 죽겠다고.....' '너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네가 웃으면 주위 사람들도 기분이 밝아진단다.' '너 창의력이 대단하구나. 이 작품 너무 멋지다.' '웃이 무척 잘 어울리네. 나날이 예뻐지는구나.'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니,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스폰지처럼 그 말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할 때 칭찬하거나 잘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특별하게 잘할 때만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을 부모가 알아차려주고 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 아이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며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훈계할 때도 상황을 알아주면서 아이의 자존심이나 인격을 흔들지 않고 잘못된 행동이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넌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애야. 그러지 말고, 딸기를 나

뉘 먹을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렴.’ 넌 나이도 먹고 분별력이 있는 앤데, 어린 동생하고 왜 그렇게 으르렁대니, 좀 더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찾아봐.’ ‘전학 온 첫날 친구 사귀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야. 넌 좋은 애니까 애들이 너의 진가를 알아 보기만 하면 너랑 친하고 싶어 할 거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이의 의심이나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 막무가내로 칭찬하지는 마십시오.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때를 골라 진심으로 말해주십시오. 거짓말은 안 하느니만 못하답니다. 긍정적인 말의 효과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칭찬 혹은 기죽이기만이 아이의 자신감 높낮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나 지시를 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자신감에 차이가 생깁니다.

어른인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느낌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차에 기름 넣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지갑을 깜빡했네. 나도 이제 늙었군’ 등)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온갖 유용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심어 넣어 아이들이 스스로 되새길 수 있게, 그래서 평생 동안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싸웠지만 봐, 그냥!”하는 대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라”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느냐고요? 요컨대 이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마”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이는 두 가지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 마’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레몬을 콧 껍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나무에

서 떨어지는 걸 아주 실감나게 상상한다면 아이는 실제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발 디딜 만한 곳을 찾아봐.’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차도로 뛰어들지 마” 대신 “나랑 인도에 같이 있자”가 쉽고 낫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안 된다’보다는 ‘어떻게 한다’를 상상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옳은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으므로 지시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야, 보트의 이쪽을 양손으로 잡고 있어”가 “그거 잡아 빼면 죽을 줄 알아”나, “너 물에 빠지려고 그래?”보다 낫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큼니다.

긍정적인 말은 아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여유 있게 대처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성공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낼 때까지 스스로 그 말들을 되새깁니다. 부모의 격려는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인 우리가 지식의 원천입니다. 좀 더 자라면 아이들은 우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나 테스트합니다(아이들은 다른 정보의 원천과 우리를 비교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임무는 아이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조금은 장밋빛이 감도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세상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가며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속임수나 거짓과 대면했을 때, 최소한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 세상에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 - 엄마 아빠를 위시한 -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애들한테 너무한 게 아닌가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늦은 건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어리든 다 자랐든 간에 이미 입력된 프로그래밍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첫 단계는 스스로 돌아보는 것, 즉 애당초 아이들의 기를 왜 죽였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불필요하게 자주 아이들의 기를 꺾곤 하는데, 거의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1.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을 되풀이한다.

부모 노릇이란 학교 같은 데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 노릇의 가장 확실한 본보기는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죠. 누구나 잔뜩 열 받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오악,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야단치던 거랑 똑같잖아! 끔찍하게 싫어했는데!’ 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녹음테이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멈추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물론 어떤 부모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 아이들을 절대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과 아이들은 자제력이 없어져서 나중에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 노릇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2.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한때, 아이들이란 원래 버릇없고 제멋대로니까 아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못됐는가를 얘기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운 답시고 수치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그렇게 자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아이들을 주눅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3. 스트레스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과로하거나, 외롭거나 혹은 권태로울 때 아이들에게 파괴적인 말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론든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긴장을 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무 말이나 막 퍼붓는다거나 화풀이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요. 배우자, 직장상사, 집주인 혹은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아이들이 제일 만만한 대상이므로 아이들은 자주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난 지금 열 받은 상태인데, 열 받게 한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한바탕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아도 그 기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야단을 맞고 더 나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빨리 다른 스트레스 해소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첫째,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일 것. 예를 들면 매트리스를 던다든가, 빠른 동작의 운동을 한다든가, 빨리 걷기 등을 해봅니다. 이걸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난 부모가 아이를 방에 앉혀놓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다면 아이들의 인생에 변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친구와 얘기하거나 배우자와 서로 기대어 스트레스를 풀어볼 것. 혹은 요가나 운동, 마사지 등 스트레스를 없애면서 몸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활동을 할 것. 요컨대 자녀를 돌보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운동이나 휴식 등 자기만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이한테 매달려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조그마한 변화에 부모들이 기뻐하며 반응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순

이전순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아동상담 전공)하고 동 대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과와 음악치료 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아동 및 정신치매자, 노인등의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보물이 가득한 땅 보조너고로

누군가 나에게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고 묻는다면 나는 "와서 살아보세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다 힌트로 '무엇 이 든 많다. 사람도 언어 종류도, 자연재해도 그리고 땅위에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고 땅 아래는 보물(?)이 잔뜩 묻혀있어 한번쯤 여행해도 좋은 나라' 고 말할 것이다. 땅 아래 보물이 있는 그곳은 많지만 그 중에서 자바의 중부와 동부 경계지역이 보조너고로지역을 말하고 싶다.

그곳에 가면 온 산들이 자띠(jati)나무로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자띠나무는 단단하여 조각하기는 힘들지만 질이

좋아 고급가구를 만든다. 자띠(티크)나무 잎은 널따랗기에 다용도로 사용된다.

오래전에 수라바야 이웃도시 삐수루안시장에 갔었다. 함께 간 사람이 쇠고기를 샀는데 상인은 비닐봉지대신 푸르죽죽한 자띠나무 이파리에 쇠고기 덩어리를 둘둘 말아 주었다. 그 모습에 위생적인 것보다는 '엄마 어릴 적에'작품들이 연상됐고, 지푸라기에 고등어 두 마리 묶어 들고 가시던 시골장터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김성월
수필가·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산기슭에서 차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갔다. 자띠나무 사이로 뱀길이가 있었고 마을사람들이 지나다녔고 그곳 사람들은 자띠나무도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동행자가 말했다. 머리에 나뭇가지를 이고, 오토바이에 기름통을 수북하게 실고 바쁜 듯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울창한 숲의 넓적한 이파리들도 뜨거운 햇볕을 다 가려주지는 못했다. 꼭대기에 도착, 차로는 더 이상 갈수 없는 곳이다. 나는 걸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송 맺혔다. 땀을 훔치면서 고개를 휙 돌려보니 우물 하나가 보였다. 나는 갑자기 심한 갈증이 느껴졌다. '와 이런 산꼭대기에 우물이 있네.' 뚜껑을 열어 돌 하나 던져보니 '퐁당'하고 소리가 났다.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흑여 우물에 나쁜 짓한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뒤돌아보는데 아저씨들



원유를 저 나르는 모습



원유우물

이 양동이 가 달린 지계를 깊어지고 오가는 것이다. 양동이 속에는 시커먼물이 출렁이고 있었는데 여쭙보니 물이 아니고 원유란다. 그럼 아까 그 우물도 물이 아니라 원유우물? 그랬다. 그것은 원유우물이었다!

비탈길이었는 데도 아저씨들은 리듬에 맞춰 걸었고 귀한 원유를 한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 물 길러 다니던 추억 때문에 빈양동이 지계를 한번 쳐 봤다. 지계 끈에는 기름때가 더덕더덕 묻어 있었고 빈양동이었는데도 내 삶의 무게가 담겨져 그런지 가볍지는 않았다. 아저씨들이 저 나르는 것이 정말 원유 맞는지 불을 붙여보자고 했고 깡통에 조금 덜어 불을 붙이니 신기하게도 불이 ‘활활’ 탔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텐트가 캠프장처럼 다닥다닥 쳐 있었다. 그곳은 원유 펌 올리는 곳이었다. 허름한 움막 속에 노인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파이프를 작대기로 고정시키는 일을 하였다. 파이프는 땅속의 황토색 원유를 가득 머금고 밖으로 나와 ‘왈칵’ 토해냈다. 파이프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걸렸고 파이프에서 원유를 토해낼 때 양은 약 10리터라고 한다. 한 구덩이에서 하루에 펌 올리는 양이 약 2~3천 리터 정도라고 했다.

갑자기 소나가기 내렸다. 기름이 잔뜩 깔린 흙바닥에 비가 내리자 물방울들인지 기름방물들이 또르르 굴러다녔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넘어지려는 날 노인이 붙잡았다. 내 하얀색 잠바에 노인의 시커먼 손자국이 묻었다. 이

제 더러워질까봐 조심하던 마음이 사라지니 훨씬 마음이 가벼웠다. 세상도 이렇게 살면 편할까 나는 노인이 들었던 작대기를 함께 붙잡고 여러번

보물이 묻힌 곳은 있으면 반드시 보물지도가 있다. 원유가 묻힌 이곳 보조너고로에도 원유우물지도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를 350년이나 지배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우물은 막고 보물지도는 가져갔다고 한다. 조상대대로 해오던 일이라서 후손들이 이리저리 파서 찾아낸 원유 우물은 주민들 개인소유라고 했다.



땅속의 원유를 파이프에 담아 땅위에 쏟아내는 작업 파이프 고정하는 일을 도왔다.

산 전체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오두막이 있고 중간에는 예쁜 색깔로 방아깨비처럼 돌아가는 기계도 수십 개가 있었다. 그것도 원유를 펌 올리는 곳인데 정유회사 것이라고 한다. 멈춘 기계들도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원유가 고갈된 곳이다. 보조너고로군에서는 위노쥘로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중이라 했다. 남의 나라 땅이지만 정말 탐나는 지역이다.

보조너고로 위노쥘로지역에 나는 두 번째 왔다. 3년 전에는 왔을 때는 조합으로 판매되는 원유가격이 너무 험값이라 주민들은 생계가 어렵다고 파업 중이었다. 그들은 조합으로 판매되는 원유가격이 원유 끌어올리기 위해 폐차를 동력기를 사용했고 약 70%가 경비로 지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날 지경이라면서 파업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자 비가 그쳤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었다. 가스회사(Exxon+ 군)측에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 가스가 독해서 진폐증 염려가 있어 매달 진료비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다. 5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매달 한가구당 25만루피아였다. 가스공장은 94년경에 건립되었고 매장량 상당히 많다고하나 채굴량에 관한 내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방아깨비처럼 생긴 기계식 가스공장



자피나무 숲도 원유우물도 가진 주민들은 부자일거라 생각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지 않은면 것만 보고 듣고 왔다. 주민들은 재래식으로, 정유회사는 기계식으로, 외국회사는 가스를 기계자동화,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사는 세상. 하늘의 구름과 강물 흘러가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데 땅의 돈 흘러가는 것은.....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낯선 마음으로 떠나선 여행

장진길 / ATMAJAYA 대학생

대홍이 형이 좋은 선생님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추천을 했다. 한인회 문화탐방, 대홍이 형은 이 탐방팀에 자주 합류하여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꼬스에만 있던 나는 머릿속에 곰팡이라도 필 것 같은 기분이 들던 차에 한인회 문화탐방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침 8시경, 주말의 이른 아침인데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한인회에 모였다. 우리의 여행을 반겨주는 듯,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기이건만 하늘이 맑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틱공장이었다. 공장이라고 해서 커다란 현대식 공장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30~40평 쯤 되는 가정집 정도의 규모였다. 아직까지 전통식 수제방식으로 바틱을 제작하고 있는 이곳은 25명 남짓 되는 직공들이, 밀랍냄새가 코를 찌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밀랍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틱을 만드는 과정에 파라핀이 쓰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파라핀액에 송진을 섞은 것이다.

어둡고 냄새나는 실내에 적응이 되니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잔명을 이용해 천 위에 무늬를 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잔명은 파라핀으로 천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분들이 잔명을 사용하는 모습은 마치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하는 우리들 할머니나 어머니 같아서 낯설지가 않았다.

바틱은 천 위에 밀그림을 그리고 염색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파라핀으로 덧칠을 했다가 염색이 끝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밀그림을 그리고, 파라핀을 입히고, 염료에 담갔다가 말리는 바틱 제작의 작업 과정을 보면서 이런 전통적인 바틱 제조 방식과 장소가 점점 사라져간다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다.

↓ 잔명을 이용한 바틱

↓↓ 바틱 짚 찌기의 달인



이 공장에서는 짚뿔을 이용해 직접 파라핀을 입히는 방법과 무늬틀에 뜨거운 파라핀액을 묻혀 찍어내는 짚(Cap)이라는 방식으로 바틱을 만들고 있었다. 짚은 바틱의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제작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무늬를 일정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일행은 손수건만한 천을 두 장씩 받아 각자 만들고 싶은 바틱을 만들었다. 나는 짚으로 찍는 바틱을 만들기로는 했는데 마음에 드는 무늬를 고르고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다. 밀랍과 스탬프를 뜨겁게 달구는 작업은 불 옆에서 하는 작업이기에 무척 더울 텐데도 웃으면서 정성스럽게 짚을 찍어 바틱을 만들어 주시던 그 분이 참 인상적이었다.

다음 탐방 예정지인 직물박물관으로 갈 시간이 되어 우리는 선택한 색깔과 짚을 주문해두고 직물박물관으로 향해야 했다. 탐방이 끝나고 한인회에 다시 도착하면 주문한 그것들이 완제품이 되어 그곳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했다. (바틱을 받았을 때 색깔과 문양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러웠다.)

직물박물관은 공사중이어서 내부엔 들어 갈 수가 없었지만 건물 밖에 있는, 천연염료로 쓰인다는 나무들과 박물관 옆에 위치한 전시관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전시관에 들어가니 화려한 나염과 무늬로 장식된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때마침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곡물의 여신 쓰리의 침대

전통 옷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옷인 한복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사공경 선생님께서 한복과 바틱 교류 전시회도 몇 번 있었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지.

국립박물관은 코끼리 건물(gudung gajah)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건물 앞에 아기코끼리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아기코끼리상은 네덜란드 식민지 때인 1871년 불교 국가인 태국의 국왕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내준 선물인데 태국은 그 대가로 보로부두르에 있던 불상들을 5대의 왜건으로 받았다고 한다.

177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Raffles 총독의 재임 중에 모아진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면서 1868년 공식적으로 박물관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곳 국립박물관에서는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신 안미경 회원 덕분에 모계 부족의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가끔 TV 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오지의 부족 추장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보로부두르 불상이 전시되어 있는 제1, 2전시실을 지나 제3전시실에 들어서면 인도네시아 지도와 함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의 지역, 생김새, 옷가지 등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전시품 중에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칠해진 침대가 있는데, 이것은 곡물의 여신 쓰리(Sri)가 쉬는 곳으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여신과 하례객의 축복을 받으며 그 침대 앞부분에<사진 3> 앉았다고 한다.

제4, 5전시실은 수마트라, 자바 민속관으로 농경생활에 사용되었던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기억 남는 전시물 중의 하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넣는 인형이었다. 이 인형은 생전에 아들이 없던 과부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수 없다고 믿었던 부족이 죽은 남편의 영혼이나 다른 영혼을 불러 그 여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식에 쓰였다고 한다. 의식이 끝나면 불태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것 중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제6전시실은 발리, 깔리만탄, 술라웨시의 민속관으로

악의 상징인 란다와 선의 상징인 바롱의 마스크가 있다. 발리인, 힌두인들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한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또 커다란 저울이 있었는데 그 저울은 왕자의 결혼식 때 신부측으로부터 왕자의 몸무게만큼의 지참금을 받는데 쓰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왕자는 결혼 전에 살을 찌우지 않았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다.

제7전시실에 들어가면 조상의 장대가 있는데 전쟁에서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부족의 남자는 무조건 전쟁에 참여해야 하며 상대 부족의 머리를 잘라 와서 해드헌터가 된다고 한다. 그 잔인함 때문에 그 부족의 여자들은 가끔 아들이 태어나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했다고 한다.

박물관을 다 둘러본 후에 우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붐부대사(bumbu desa)라는 순다식 음식점으로 향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해산물 등이 짝 펼쳐져 있어 뷔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뷔페는 아니고 자가 먹을 음식을 골라 접시에 담아서 그것만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따후고랭, 땀빼고랭, 닭다리 고추무침 등 맛있어 보이는 이 나라 전통 음식 몇 가지를 접시에 담아 다 먹었다.

인도네시아의 두부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한다. 그 중에 내가 선택한 따후고랭도 두부 요리의 한 종류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맛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두부였다. 실제로 따후는 두부라는 뜻의 인도네시아 말이기도 하다. 간이 잘 배여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먹은 따후고랭 중 가장 맛있게 느꼈다. 땀빼(Tempe)는 자

바에서 처음 만든 두부 요리라고 했다. 우리나라 메주 비슷하며 보기에 영양가가 높은 웰빙 음식 같았다. 자바에 두부가 처음 들어 온 것은 1000년 전이라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두부는 빼놓을 수 없는 서민들의 식품이었다.

돌아오는 마지막 코스로 묘비박물관에 들렀다. 갖가지 형태의 묘비가 그 주인의 살아있을 때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곧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어떤 분이 하시던 얘기가 이곳에서 갑자기 떠올랐다. 그렇구나, 이곳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상징하는 곳이었구나, 역설적이게도!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늘 문화탐방을 따라나서기를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처음엔 낯선 마음으로 따라나섰던 여행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하루의 여행 덕분에 낯설기만 하던 인도네시아가 가깝게 느껴지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을 느끼게 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더욱이 내 자신 삶의 여정을 다시 돌아볼 필요를 느끼며 돌아오는 길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오늘 하루 사이에 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라는 믿음이 드는 것, 정말 고마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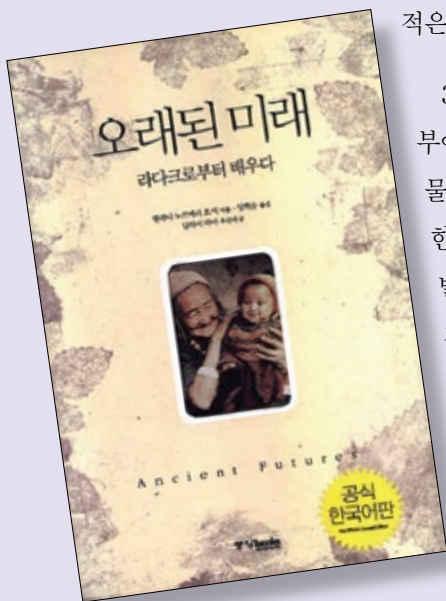
국립박물관에서



오래된 미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언어학자이며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이다. 이 저서로 1986년 노벨상에 버금가는 권위를 지니며 대체노벨상이라 불리는 Right Livelihood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책을 영상화한 동명 영화에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된 책과 영화는 현재까지 세계 전역의 민간운동기구 관계자들 사이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라다크Ladakh’는 ‘라 다그스La Dags’라는 티베트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길의 땅’이라는 뜻이다. 라다크인들은 1000년이 넘는 티베트 불교가 뿌리를 내린 히말라야 산맥에서 파생된 고산지역의 주민들이다. 책은 저자가 라다크 에서 16년간 살며 경험한 내용을 적은 글이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라다크가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기 전의 순박한 모습을, 제2부에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경제시스템의 주변에 편입되면서 겪는 라다크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라다크의 미래를 구상하는 부분으로서 저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사회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시종일관 라다크를 관찰하는 저자의 입장은 ‘반세계화’라고 명명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구호나 관념에 머무르는 그렇고 그런 종류의 ‘운동’은 결코 아니다.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라다크 사람

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사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실 반세계화나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은 2007년 이후에는 새롭게 현실성을 담지하게 되었다. 2007년초부터 오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문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론의 경우 저개발국이 선진국의 발자국을 따라 기술을 채택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저개발국인 중국과 인도가 개발 단계에 들어서자 더 이상 종전의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소비 집약적인 현대 문명은 오직 소수의 인류만이 한시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문명이다. 과학기술문명이 어렵지 않게 자원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줄 듯이 주장되었으나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과학기술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현재와 유사한 문명이 지속될 수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기적”을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자의 주장은 단순하고 자명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중시하는 문명이지 자본이 스스로를 증식하며 사람들을 삼키는 체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광폭한 팽창과 수축에 따라 삶이 피폐해지는 시대에 무엇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전통사회의 해체에 따른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부 국가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열등감도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진지하게 들려다 보아야 할 우리의 현실이다.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갖고 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행상을 하며 생계를 책임 지던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로 성공한 노르웨이 출신의 콘라트 힐튼은 기자들이 성공 비결에 대해 물으면 5달러짜리 평범한 쇠막대를 들어 보이며 “그냥 두면 쓸모 없는 싸구려 쇠 막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쇠막대로 바늘을 만들면 3250달러를 벌 수 있으며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원자재가 부족 합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나’ 라는 원자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물건일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쓸모 없기도 하고 큰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전 그는 은행 보조원 및 호텔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노력, 꿈과 희망은 아버지를 따라 미국 전역을 돌며 행상을 하던 가난한 소년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인 성경에도 보면 꿈꾸는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노력 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콘라트 힐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 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꿈에 의해서 결정 된다. 성공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2010년 새해에는 여러분도 멋진 꿈 꾸시고 그 꿈이 멋진 현실로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다함께 차차차 Mari berjoget.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 미약하던 시절을 생각지 못하고 거만한 사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 합니다.

진경은 한 이와 결혼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은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 불만을 토로 하거나 남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 뱉습니다.



철이 분가 하겠다고 하자 진경이 철에게

Itu yang dikatakan Na yun?

Dia egois, **mentang-mentang** anak orang kaya.

그 여자가 그러지요? 잘 사는 집 딸이라고 아주 자기 맘대로야.

Mentang-mentang 은(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1. ~
어떠한 이유로(**Maka**), 2. ~이라고 느끼기 때문에(**Hanya
karena merasa**)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Gara-gara(Penyebab) 또는 **Karena, sebab** 같은
경우 ‘~때문에’ 라는 이유들 나타내지만 ‘~ 때문에 ~이라고
느끼기 때문’ 이라는 뜻을 **Mentang-mentang** 과는
구분되어 사용 됩니다.

예) **Mentang-mentang** dia kaya, barang yang tidak
perlu dia beli juga.

부자라고 필요 없는 물건도 산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Aku tak bisa pulang cepat **gara-gara** temanku
merusak alat penting.

친구가 중요한 장비를 망가뜨려 일찍 퇴근 하지 못한다.

Aku akan pulang ke tanah airku **karena** masa
visaku berakhir dalam bulan ini.

이번 달에 비자가 만료 돼 본국으로 돌아간다.

Tidak ada yang seperti Engkau **sebab** perbuatanmu
ajaib.

위대한 업적을 행한 당신,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Tip)

Sebab과 **karena** 는 ~ 이기 때문에, ~인고로, 유사한
뜻으로 사용 되지만 **Sebab** 은 문두에 위치 할 수
없습니다.



수상한 가족 Keluarga Aneh



결혼, NO! 연애 Yes!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이혼한 건강은
엄청난이 던져놓은 덫에 걸리듯,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엄청난과 의 관계를 들키고
청난은 이에 힘입어 결혼을 추진 하고자 건강의 집에 찾아와
화장실에 숨게 된다.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 가려고 하자 건강이 말리고 엄마...

Aku sudah **kebelelet** kenapa kau melarangku?

급해 죽겠는데 왜 안돼? (주로 구어체에 사용됨)

Kebelelet (Tak sabar lagi) 몹시 원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표현 할 때 사용 합니다. (갈망하다)

Mengidam(Orang yang hamil ingin sekali
makan sesuatu / 임신한 사람이 입덧 중에 무언가를
간절히 먹고 싶어 할 때) 과 **Penasaran** (Ingin tahu
sekali / 어떠한 것이 궁금해서 매우 알고 싶어 할때)도 ~
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문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됩니다.

예) Istri saya **mengidam** makan mangga.

(임신한) 아내가 망고를 몹시 먹고 싶어 한다.

Aku **penasaran** apakah aku naik kelas atau tidak.

진학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알고 싶다)하다.



북한의 화폐개혁, 근본적인 처방 모색해야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당국이 17년만에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의 여파로 혼란에 빠졌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100대 1로 단행된 화폐 개혁에 따르면 구권은 12월 6일까지 교환되며 이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 당국은 가구당 구권 화폐 10만원권은 1천원의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에 '저축' 토록 조치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상행위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화폐로 개인적 부를 축적해온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했다.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전국적인 화폐 교환이 시작된 이틀째인 12월 3일부터 북한 당국은 교환한정금액을 다시 확대하는 등 제한된 무마책을 쓰고 있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언론보도와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지난 1일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 이후 곳곳에서 폭력 사고가 잇따르는 등 주민들의 반발과 동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북한 당국은 주민감시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군도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린다. 더구나 구권과 신권의 교환이 마무리돼 기존 화폐사용이 전면 금지된 12월 6일 이후에도 크고 작은 소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의 목적으로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관리체제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계획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조치는 북한 통화금융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총체적 불신을 가중

시켜 경제체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도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지 못할 경우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금융자산이 폭락한 데다, 생필품 사재기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북한 당국의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부분적·일시적으로는 그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만성적인 물자공급능력 부족, 재정적자애다가 이번 화폐개혁조치로 주민과 시장의 정권에 대한 불신이 보태지면서 더 큰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식량과 공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화폐개혁을 통해 확보한 국내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시켜 생산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면서 가능한 일이다. 점진적으로라도 향후 생산전반에 걸쳐 개인 기업을 허용하여 생산능력을 제고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본축적과 합리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지향적 금융시장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분야의 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는 금융분야 개혁이 전반적 사회제도와 연계되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현 시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등을 진전시켜 한국이나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을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한 김정일을...

도희운(反인도범죄조사위원회 사무총장)

“OTP-CR-946/09”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범죄 제소장에 대한 접수증 번호이다. 북한인권운동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문서를 헤이그에서 가슴에 안으니, 100여 년 전 나라 잃은 설움과 일제의 야만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수만리 길을 달려온 이준열사 일행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던 그때가 연상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회한의 소용돌이가 느껴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CC 관계자가 참석한 국제회의를 통해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12월 10일 드디어 ICC에 제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짐승처럼 떠돌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면면이 스쳐지나 갔으며, 아직도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주민들의 처참한 삶이 떠올라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 이번 ICC제소에 보여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과, 남아있는 가족과 자신을 향할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ICC 증언을 위해 기꺼이 용기를 내어준 150명의 탈북자들이 더없는 힘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NGO, 유엔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상설재판소를 통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중지를 모았고, 북한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차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일을 택해 ICC에 김정일의 제소를 결의하였고, 제2의 헤이그 특사의 임무를 기꺼이 수행하게 된 것이었다.

2009년 12월 10일은 북한인권운동사에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ICC 접수번호 “OTP-CR-946/09” 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징적 철회가 될 것임을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ICC의 제소장 접수에 이어 우리는 ICC가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것이 서면이든 방문 조사의 형식이든, 이 같은 조사과정을 통해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ICC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ICC의 조사는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며, 주민 통제에 대한 균열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국제사회의 사법적 방식에 의한 북한인권 개선의 압박은 북한 집권층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는 김정일을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ICC에 제소한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려움보다 더 많은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김정일에 대한 ICC의 심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함을 강조하며,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이를 실행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ICC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3, 제4의 헤이그 밀사가 되는 희망의 꿈과 함께,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범죄 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어둠과 절규의 땅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빛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글로벌 기후 대응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건우(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세계적인 관심 속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가 당초 목표로 했던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 대신 120여개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결정문을 선언하는 선에서 막을 내렸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하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정지원 마련 및 배분 방안 등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겨둔 채 2010년 12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당사국 총회를 기약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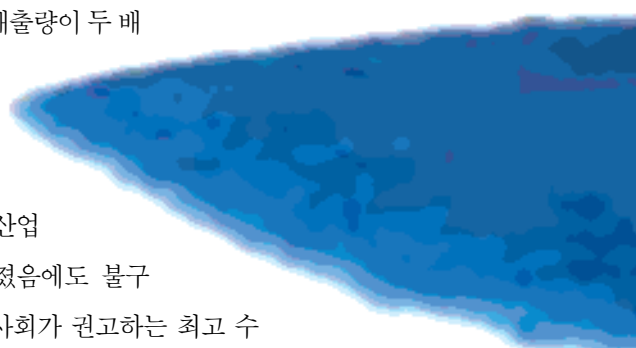
하지만 전세계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당사국 총회 사상 가장 많은 120여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몇몇 선진국의 재정지원 계획이 발표되고 열대우림 지역 보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내용상의 성과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구상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하여 한국을 녹색성장의 국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도적으로 투

입해 온 노력을 발판으로 녹색연구 및 논의의 장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궁극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 및 기후변화 관련 기관이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에게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2009년 11월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이 비의무 감축 국가이지만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



한 감축노력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른 자신감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에 대해 양보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중간자’ 또는 ‘가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한국이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이미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공감대를 얻게 되면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의 한국 개최가 더욱 유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012

년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포스트 2012 기후협력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시기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당사국 총회 때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12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듯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2012년 총회에서도 새로운 체제와 관련된 액션플랜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이후 체제에 미칠 영향력도 클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향한 행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최저임금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는 매년 1월1일자로 각 지역별 주지사가 발표하는 새로운 임금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시/군단위) 노사정 임금결정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적정 생계비 조사,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임금, 산업현황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次期 年度の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건의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주지사에게 최저임금 보고 및 승인 신청하고 주지사는 각 시장/군수의 건의 사항 및 州 단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검토사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차기 년도의 최저임금은 발효 최소 40일전 공표하도록 되어있는데(보통 매년 11월경 발표) 각 개별 기업에서는 이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을 진행하게 된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은 관할 州 노동이주부의 승인을 거쳐 주지사에게 유예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인상 관련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대표와 협상하여 마무리하고,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 대표 또는 사원대표와 인상 내용을 협의 공표하기도 하고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내용을 공표하기도 한다.

회사의 형편을 떠나 임금인상은 항상 어려운 과제이며 어떻게 임금인상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회사 분위기가 좌우 될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인상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사원들이 항상 불만에 싸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회사를 불신하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회사의 경영현황 및 주변환경 등을 잘 이해시킴으로써 좀더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회사가 있다.

임금인상에 있어 Macro한 전체를 고민하되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부분, 소프트한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사원을 설득,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화합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노무 부분의 가장 큰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임금인상에 대해 필자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유예 신청 등 법적인 부분 및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I.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1. 적정 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 1) 근거: 노동부 장관령 17호/Men/VIII/2005
- 2) 정의: 근속 1년 미만 미혼 근로자의 육체적, 사회적 생활을 위한 월 적정생계비.
- 3) 목적: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써

최저생계비의 상위 개념임.

4) 절차:

- 각 주/군/시의 임금결정위원회 의장에 의해 구성된 정부, 사용자 및 노동조합 등 노사정 요소가 참여하는 팀에 의해 적정 생계비 계산을 위한 각 항목별 시장 가격 조사가 실시됨.
-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임금위원회 또는 군수/시장은 적정생계비(KHL)를 결정함.
- 상기 절차에 의거 결정된 적정생계비는 지역최저임금 결정의 근거자료가 됨.

5) 적정 생계비 계산 항목:

- ① 음식
- ② 의류
- ③ 주택
- ④ 교육
- ⑤ 의료비
- ⑥ 교통비
- ⑦ 여가선용 및 저축

2. 지역 최저임금(Upah Minimum Regional)

1) 근거:

- 최저임금에 관한 장관령 01/Men/1999
- 임금결정위원회 관련 대통령령 107호/2004년
- 적정 생계비 관련 장관령 17호/Men/VIII/2005

2) 정의: 최저임금이란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구성된 월 최저 임금을 말하며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구성된다.

3) 절차:

- ① 임금결정위원회 구성(시/군 단위)
 - 노사정 1:1:2의 비율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홀수 이고 위원장은 정부가 맡음.
 - 임기: 3년
 - 필요에 따라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음.
- ② 적정생계비 조사
- ③ 임금결정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지역최저임금/업종별 최저임금 건의
- ④ 시장/군수는 주지사에게 관할 시/군 지역 최저임금 건의
- ⑤ 주지사는 시장/군수의 건의서 및 州 단위 임금결정위원회의 검토 및 건의사항에 근거하여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4) 시기: 최저임금은 발효 최소 40일전 공포됨.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 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 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 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5) 최저임금 적용 유예:

① 일반:

지역최저임금을 적용할 능력이 없는 회사는 관할지역 州 노동 이주부를 경유하여 주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지역최저임금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신청은 아래 규정을 참조하여 최저임금 적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청되어야 함.

- 최저임금 유예 승인이 진행중인 기간 중 회사는 기존 적용 급여를 계속 지급함.
- 최저임금 유예 신청이 거절된 경우 사용자는 신규 지역최저임금을 지급함.
- 최저임금 유예가 승인된 경우 회사는 승인서에 기재된 최저임금을 지급함.

② 지역최저임금 적용 유예 신청 자격요건 (2003년 231호 장관령 참조):

- 서면 노사합의서 원본(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사원 50% 이상을 대표하는
사원대표와의 합의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최근 2년간 경영현황 설명 자료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것)
- 회사 정관 사본
- 직책별 사원 급여 자료
- 최저임금 유예 적용 대상 사원 수
- 최근 2년간의 생산, 판매 현황 및 향후 2년간의 생산, 판매 계획



제시하는 수치가 합리적이고 최선을 다한 수치임을
간접적으로 설득시킴.

3. 임금 협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대표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 3~4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1차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 Rule, 노사의 전반적 현황을 공유하고 2차 협상에서는 노사 쌍방의 인상案 제시 3차, 4차에서는 노사 쌍방의 설득, 양보, 최종 타결 순으로

진행이 된다. 협상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인상금액을 제시하여 타결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 회사가 제시한案을 끝까지 관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매년 진행되는 임금협상에 있어 노조에게 항상 회사가 더 높은 수치를 협상시 마다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함으로써 초기 회사 제시案을 불신하게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양보 없는 협상의 단점으로 인해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초기 회사가 제시한案이 회사가 사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수치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I. 합리적 임금인상:

1. 임금인상(案) 수립:

지역최저임금 인상금액/인상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시장임금 등의 외적인 요인 및 회사의 평가, 생산성, 경영실적 등 경영현황 전반의 내부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체 임금 인상 수준 및 각 직급별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2. 회사 경영현황의 이해 및 설득:

사원들과 공유가 곤란한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회사의 경영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평가/판매량 추이, 자재비/기타 경비 추이, 노무비 추이, 품질, 생산성 등)를 준비하여 사원들과(노조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함께 공유함으로써 회사의 상황을 이해 시키고 이를 통해 회사에서

4. 홍보:

협상이 타결되면 회사 조직 체계에 따라 인상내용을 홍보하게 되는데 각 조직의장이 해당 구성원들에게 임금인상 내용 및 그 배경을 설명하여 사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부서에서는 사전 홍보내용을 준비하여 각 조직 長에게 설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적인 홍보를 꾀 할 수 있다. 또한 인상 내용을 수치화(기본급 또는 수당 인상 금액 및 급여인상에 따른 O/T 증가금액 등)하여 실제 사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설명한다면 사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물 및 석탄광업 분야 용역업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yisngmin@centrin.net.id

광물 및 석탄 광업분야 용역업(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에 관한 동자부 장관령 2009년 제28호가 2009년 9월 30일부로 발효되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광산 회사 중 인도네시아 정부와 석탄개발 협정 (PKP2B)이 체결되어 있는 2개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계 광업회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계 광업회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받은 업종은 일반 광업분야 용역업이나 실제로는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 하청형태의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되는 광물에 대하여 톤당 얼마씩의 로얄티를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로얄티 지불방법 협력계약 형태로 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장관령 제7조에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는 하청업체가 일한 결과에 대하여 로얄티(Fee) 받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로얄티 지불 형태의 광산개발을 엄하게 금하는 새 법규의 발효로 현행법과 다르게 광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의 관계를 새 법규에 맞게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법규는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 하청업체 간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적법, 투명 및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불이익이 우려된다. 또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 한국계 회사 간에 광업용역업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이 합작회사와 주주인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 간에 하청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가 실질적으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관령 제8조에 소유관계로 관련된 자회사 혹은 방계회사가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의 광산의 용역 하청업체가 되는 것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합작회사를 통한 광산 개발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광업분야 용역업 회사로 허가를 받아 로얄티 지불형태로 광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관계 법규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지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 광업분야 용역업 회사의 구분

1.1. 소유주에 따른 구분

국영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주식회사, 조합, 개인사업자, 합명회사, 합자회사

1.2. 사업활동 지역에 따른 구분

1.2.1. 로칼 용역회사, 내셔널 용역회사, 기타 용역회사

1.2.2. 로칼 용역회사란 100% 내국인 소유 회사로써 해당 주 또는 시/군 행정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로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사유 주식회사, 조합, 개인사업자,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의미하며,

1.2.3. 내셔널 용역회사란 100% 내국인 소유 회사로써 전국적으로 혹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영 기업체, 사유 주식회사 및 개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1.2.4. 기타 용역회사란 외국인이 지분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도네시아 법인(*외자투자회사)을 의미한다.

2. 광업분야 용역업종 구분

2.1. 다음 분야에 관한 자문, 기획, 시공 및 장비 테스트 업종

- 2.1.1. 일반 조사
- 2.1.1. 시추
- 2.1.2. 사업타당성 조사
- 2.1.3. 광업시설물 건축
- 2.1.4. 수송
- 2.1.5. 광업 환경
- 2.1.6. 채광 후 성토 및 조성
- 2.1.7. 작업 안전 및 보건

2.2. 다음 분야에 관한 자문, 기획 및 장비 테스트 업종

- 2.2.1. 채광
- 2.2.2. 가공 및 정제

3. 내국인소유 업체 사용의무

3.1.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100% 내국인 소유인 로칼 혹은 내셔널 용역업체를 사용해야 한다.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가 용역 하청 업체를 찾는다는 광고를 지역 및/혹은 전국적인 메스 미디어에 냈으나 응찰하는 로컬 회사 혹은 내셔널 회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용역업체(외자투자회사)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용역 계약은 적법, 투명, 적절해야 한다.

3.2. 기타 용역업체가 수주하는 경우에는 기타 용역업체는 용역의 일부를 반드시 로칼 회사 혹은 내셔널 회사에게 재하청을 줘야 한다.

4. 로얄티 지불형태 광산개발 금지

인도네시아 헌법 제33조 3항은 갱신이 불가능한 천연 자원자원인 광물 및 석탄 개발은 국가가 장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물자원에 대한 로얄티는 국가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광업사업허가서를 받아 자체에서 개발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로얄티를 받는 형태의 광산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광업사업허가서가 취소된 회사도 있다. 현재 로얄티 지불형태로 광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는 불법이



되어버린 로얄티 지불형태 광산개발 계약을 해지하고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의 관계를 현지법에 적합한 관계로 재조정해야 한다. 구법에 의하여 광업사업허가서 발급자로부터 로얄티 지불형태 광산개발 계약을 이미 승인받은 회사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광업분야 용역업에 관한 동자부장관령 2009년 제28호 제7조 2항은 “광업사업허가서 혹은 특별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가 하청업체가 행한 하청의 대가로 Fee 받는 것을 금한다(dilarang)”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조문에 “dilarang”이라는 단어는 엄하게 금한다 는 뜻이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5. 자회사 혹은 같은 그룹회사 하청 금지

광업사업허가서가 주주로 되어 있거나 지분 소유 관계로 관련이 있는 회사에게 하청을 금한다. 그러나 동자부장관을 대리한 광물 및 석탄 광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자부 장관을 대리한 광물 및 석탄 광업청장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5.1. 해당 지역(주, 시/군)에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가 찾고 있는 광업분야 용역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광업분야 용역업 회사가 없는 경우
- 5.2.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가 찾고 있는 하청업체가 투자 규모, 운용자금 규모,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 5.3. 해당 지역(주, 시/군) 혹은 전국을 커버하는 메스 미디어에 입찰광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거나 재정 및 기술적으로 능력이 되는 회사가 없는 경우
- 5.4. 광물 및 석탄 광업청장에게 가격 이전(transfer pricing) 혹은 transfer profit *탈세 혹은 절세 목적 이해관계 거래자 간 불공정 가격 거래 행위)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6. 직접 채광, 가공 및 정제 의무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는 채광, 가공 및 정제 절차는 광업분야 용역업체에게 하청을 주지 못하며 반드시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 스스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법조문에 “wajib”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뜻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채광 행위의 범위는 광물을 채취하는 직접적인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사전 행위인 표층 제거 작업(striping)과 광물 혹은 석탄 수송 작업은 하청을 허용하고 있다. 표층 제거이란 표층을 파는 작업, 상처, 제거된 표층 이동 작업을 포함하며 폭과 작업도 이에 포함된다.

7. 광업분야 용역업 사업허가서

- 7.1. 광업분야 용역업 사업허가서는 자문사, 기획사, 시공사 혹은 장비 테스트사로 구분한다.
- 7.2.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제외 Rp.50억 이산 순자산 보유 회사는 대형, 그 이하는 소형 용역업으로 구분한다.
- 7.3.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사업허가서를 받은 회사는 사업 활동 허용 지역이 전국 단위이며, 주지사로부터 사업허가서를 받은 회사는 해당 주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활동이 허용되며, 시장/군소로부터 사업허가서를 받은 회사는 해당 시/군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활동이 허용된다.
- 7.4. 광업분야 용역업 사업허가서 유효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8. 광업분야 용역업 사업허가서 보유자의 의무

- 8.1. 인도네시아 국산품을 이용해야 한다.
- 8.2. 로칼 재하청업체를 사용해야 한다.
- 8.3. 로칼 인력을 이용해야 한다.

- 8.4. 사업허가서에 나와 있는 업종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 8.5.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의 모든 하청계약서를 광업분야 용역업 사업허가서 발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8.6. 관계법규에 따라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 8.7. 하청을 수행함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을 최대한 로컬 물자와 로컬 용역을 최대한으로 써야 한다.
- 8.8.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해야 한다.
- 8.9. 교육 향상, 훈련, 공공 보건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
- 8.10. 분기별 및 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허가서 발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8.11. 상기 8.10 항의 보고서 내용에 투자, 하청 계약액, 계약 시행 실적, 하청계약 당사자, 인력, 장비 목록, 국고에 납부한 공과금 납부 실적, 지방자치단체에게 납부한 공과금 납부 실적, 로칼 매입 실적, 국내 매입 실적, 수입 실적 및 지역사회 개발 실적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9. 경과 규정

광물 및 석탄 광업분야 용역업(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에 관한 동자부 장관령 2009년 제 28호 이 발효되기 전에 구법에 근거하여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자와 광업분야 용역업체 간에 이미 체결된 하청 계약서는 동자부 장관령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자부 장관령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동자부 장관령 발효 이전에 구법에 의해 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 계약에 대하여 광업사업허가서 발급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하청 계약서는 동자부 장관령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이미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하청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업사업허가서 발급권자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하청계약서일지라도 로열티 지불형태 광산개발 계약은 동자부 장관령 발효일부터 무효이며 불법에 해당된다. 한국계 광산회사는 PKP2B를 보유하고 있는 2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로열티 지불형태로 광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이에 해당되므로 광산사업허가서 보유자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재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면해 있다.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가. 회원증 사본 제출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MOVIE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해.
 세상에서 젤 예쁜 내 보물 소라,
 엄마는 소라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우리 소라 좋아하는 게임기, 장난감도 많이 많이 사주고 싶어.
 비 오는 날, 우산 잇고 가도 젖지 않게 엄마가 데리러 갈게
 친구랑 싸우면 엄마가 멋있는 생일파티 열어줄 테니, 화해해.
 멋지게 발레 하는 우리 소라 공연도 찾아가고,
 소풍 가는 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도 싸줄게.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도 엄마가 제일 잘하고, 꼭 주고 싶었던 한 가지는 해주고
 싶어.
 소라를 위해 엄마가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웨딩드레스.
 이 드레스 입은 우리 딸 꼭 보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우리 소라랑 함께하지 못해
 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사랑한다. 소라야.

깨어있어라! 숨어라! 도망쳐라!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을 공격한다!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세계,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
 은 굶주림과 흑한을 피해 남쪽으로 길을 떠난다. “무섭다”며 자
 신의 품을 파고 드는 아들(코디 스미스 맥피) 때문에 아버지(비
 고 모텐슨)는 카트에 실린 약간의 물과 기름, 식량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까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우린 불을 운반
 하는 사람들이야” 아들에게 속삭이지만 이내 인간사냥꾼이 되
 어 버린 생존자 무리에 쫓겨 아들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
 는데...
 그들은 과연 따뜻한 남쪽 바닷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살아남은 자들이 공포가 된 세상,
 생존을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숨막히는 사투가 시작된다!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 스타를 부탁해

저자 박성혜 | 출판사 씨네21

김혜수, 전도연, 지진희 등 최고의 배우 뒤에서 매니지먼트계를 호령한 박성혜를 만나!

매니지먼트계의 빅마마 박성혜가 밝히는 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세계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스타를 부탁해』. 배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매니저이다. 이 책은 운전 못하는 엉뚱한 초보 매니저로 시작해 최고의 매니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박성혜가 겪은 좌충우돌 성공기를 다루고 있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로 불리는 거대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의 본부장에 30대 초반이라는 놀라운 나이로 올라선 박성혜가 전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세계와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EBS 지식 프라이밍

저자 EBS 지식프라이밍 제작팀 | 출판사 밀리언하우스

11명의 대표 지성들이 전하는 명품지식 바이블

『지식프라이밍』은 EBS에서 방영된 신개념 교양다큐 <지식프라이밍>의 내용 중 시청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에피소드를 모아 엮은 책이다. 정보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명품지식을 선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경제, 인류학, 통계, 법률, 심리, 역사 등 각 분야의 심층 지식과 당대의 키워드를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였다. 불과 5분의 방송시간에 아쉬움을 느낀 이들에게 이 책은 지식 다큐멘터리의 특별한 감동과 재미를 전한다.



3분만에 마음을 얻는 말하기의 기술

저자 오쿠시 아유미 | 역자 송수영 | 출판사 이아소

3분을 넘기면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책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3분 말하기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문가인 저자 오쿠시 아유미는 샤넬, 소니, 에스티로더, 오라클, 메이지 유업, GAP 등 150개가 넘는 기업을 상대로 한 강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만을 소개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짧게 말하라'고 강조하는 저자는 상대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30초의 오프닝과 15초의 클로징,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콘텐츠 만들기, 호감을 주는 외모와 전달력 등 3분 안에 모든 생각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저자 조너선 사프란 포어 | 역자 송은주 | 출판사 민음사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마음을 치료하는 책으로 소개하며 화제가 된 그 책!

2000년대가 낳은 미국의 작가들 가운데 가장 논쟁적이고 독창적인 인물로 꼽히는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두 번째 장편소설. 9.11사건을 배경으로 아홉 살짜리 소년 오스타의 이야기를 기발한 상상력과 다양한 방식의 시각적 효과로 그려내고 있다.

아마추어 발명가이자 탬버린 연주자이며, 셰익스피어의 연극배우, 보석세공사이면서 평화주의자인 오스카는 아홉 살이다. 그리고 그는 뉴욕 구석구석을 뒤져야 하는 긴급하고도 비밀스러운 탐색을 하고 있다. 그의 임무는 9.11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 때 세상을 떠난 아빠의 유품 속에 있던 열쇠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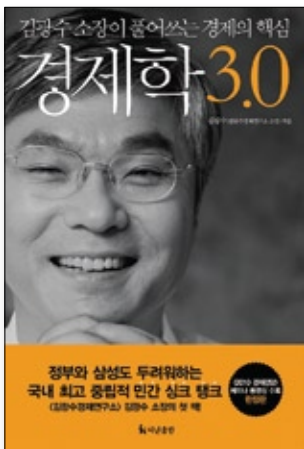


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

저자 이용한 | 출판사 북폴리오

길고양이와 함께한 1년 반의 기록 『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 2007년 12월 초 집 앞에서 만난 다섯 마리의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와의 만남 이후 저자 이용한은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책은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며 약 1년 4개월 동안 써내려간 기록이다. 길 위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과 위안을 전한다.

고양이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져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검정고양이를 보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용한은 이러한 오해들과 편견을 깨고, 고양이들도 뜨거운 심장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절망 그리고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학 3.0 - 김광수 소장이 풀어쓰는 새시대 경제학

저자 김광수 | 출판사 더난출판사

번득이는 통찰과 혜안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전문가 김광수. 이 책은 중립적 민간 싱크 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첫 책으로, 그가 풀어내는 경제의 핵심을 만날 수 있다. 본문은 로또, 삼성전자, 빈곤, 녹색, 부동산, 주식 투자 대학 개혁, 케인지안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토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짚어간다. 또한, 개발 연대의 경제 성장 뒤집어 보기,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줄라 공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사랑의 교회	4584 6674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지)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지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7-6030 F: 4587-817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styl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힛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덤)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덤)	9773 4780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하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9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뎸)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4034
------------	---------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포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썬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 아트스쿨(리브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향(플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2010 재외동포 장기(모국수학)교육과정 지원자 모집

국립국제교육원은 2010년 재외동포 장기(모국수학)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동포분들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niied.go.kr-공지사항)에 게재된 모집요강을 참고하시어 2010.2.12(금)까지 대사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문의사항은 82-2-3668-1343(국립국제교육원) 또는 joy@mest.go.kr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작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인,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 핸드폰: 0811-183-3164

E-mail: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한인회 2층

지도강사: 안선근 교수

연락처: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한인회 2층

연락처: 521-2515 / 0815-1177-1899

173회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탐방

일시: 1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탐방지: TAMAN MINI(+ 파푸아관 이벤트)/대통령 박물관/Lubang Budaya 외

출발지: 한인회(코리아센터)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대한항공 운항 시간표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운항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09.10.25	10.3.27		자카르타	21:55	서울	06:50*1
KE628	매일	09.10.25	10.3.27	772	자카르타	21:55	서울	06:50*1
KE627	매일	09.10.25	10.3.27	772	서울	15:20	자카르타	20:30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1.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10.27(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허가(IMTA)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 사항

- 사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취득
-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인사, 경리등)에 취업 여부 확인
- 단기체류라도 업무 수행 필요시 단기 취업비자 취득

3. 참고사항 : 처벌규정 (인니 노동법)

- 취업허가 없이 취업: 1~4년 징역형 / 1~4억 루피아 벌금형
- 직책규정 미준수: 1~12개월 징역형 / 1천~1억 루피아 벌금형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손수지 학생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새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밖에 없는 딸 수지예요. 언제나 제 곁
 에 있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 2010년 에는 더욱더 엄마, 아빠의 자
 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 PDF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하는 ‘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
 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달되고 한국
 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
 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
 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
 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
 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 배상 -

